

BROKE

IN KOREA

JENNY WOO



GLEN

MATLOCK

서른 돌양치

TALKBATS!

대티라곤

당키사년합찬
80소년합찬

LEPR
TEMPLE

STRUGGLE
SESSION

A P(Θ)RIA

CHOOSE YOUR
BROKE ADVENTURE
SAVE THE PRINCES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THIS ZINE KILLS FASCISTS

when improperly ingested



Issue 25
October 2018

This zine has been published at random intervals for the past ten years.

Founders
Jon Twitch
Paul Mutts

Editor
Jon Twitch

Contributing Writers
Alisa Favi
Verv kind of

Translator
Google Translate
Kakao Translate
(yeah, that explains a lot of things, right?)

Photos
Jon Twitch
the internet

Layout
Jon Twitch

Contact
jon_dunbar
@hotmail.com

PDFs of Broke:
daehanmindecline
.com/broke

Contributors are always welcome.

This zine is created using a neverending sequence of Adobe InDesign CC free trials. Apparently the 30-day timer doesn't matter if you just keep downloading it on a PC방 PC.

Letter from the Editor

Ah dammit, everything done except this letter. It's 5am already and Jenny lands in less than 12 hours. Increasing font size...

This Broke comes over a year since the last. I probably wouldn't have released it right now if it weren't also for the Jenny Woo tour. There's also a lot of stuff to catch up on, most notably my recent visit to the Other Korea one month earlier. And the Olympic torch.

This issue also has some of the most disturbing stuff I've published (okay, I've published Verv's writing, so weirdest I've self-published. How many of these articles violate some security or defamation law?

This issue's Choose your Broke Adventure is a sequel of sorts to last issue's "Excavator Vigilante," only this time you're part of the crazed elderly people fighting to have Park Geun-hye freed. This zine doesn't have trigger warnings but as it wades into modern politics, there is a lot of explicit violence and horrible sex stuff happening. If you don't like it, hey, I'm not voting for those guys.

I've tried to out-horrible myself by creating a new anti-science movement, the anti-colo group COOCU, which enforces some very, very wrong gender and sex stereotypes in order to increase cancer deaths. There's no way to make that sound better, other than maybe the anti-vaxxer movement started in some punk zine as a prank.

On the bright side, I talk about meeting my temporary husband at Seoul Queer Fest, a surprising experience I could never have predicted. Sure, he was a Christian anti-gay protester, but the moment threw us together.

I also present my burlesque play that I hope someone would produce.

There's also a lot of great music stuff. Usually the first half before the centerfold is all music, but this time it crept over the center line, accounting for more than a usual Broke. How many punk zines can brag they have an interview with a former Sex Pistol? None, because zines are incapable of speech and thus can't brag.

We'll see when the next Broke is. Maybe another year, maybe longer, maybe sooner. Maybe the next one will be about another interesting music event, or maybe it'll be even more self-indulgent. Anything could happen.

Jon Twitch
PS) I didn't start smoking just for that cover image.

Table of Contents

- 1. Cover
- 2. This Page
- 3. Jenny Woo
- 6. Glen Matlock
- 8. Talkbats
- 9. Dolmangchi
- 10. Drinking Boys and Girls Choir
- 12. Dirty Rockhon
- 13. Leper Temple
- 14. Struggle Session
- 15. Apterina
- 16. K-Pop Killers
- 18. Still Alive
- 20. Dan Orozco
- 22. Seoul Queer Fest
- 23. Burlesque
- 24. White extinction
- 25. Good ideas, Bootfuck
- 26. COOCU
- 27. Plaid Earth
- 28. Reviews
- 30. Crossword, What You Say?
- 31. The Other Korea

Choose Your Broke Adventure: Save the Princess

You're a 65-year-old woman in Korea, the South one. Your leader is in jail and a pre-

tender sits in her throne, a spy from the North. He has been dismantling your society, raising the minimum wage, talking with the North, imprisoning the rich and powerful. Well, as long as you have healthcare and a pension, you can stay strong

to focus on fighting socialism in all its forms.

You're all full of Bacchus and gin-seng, and it's time to take back the government from the people. But you don't have control of the Army

like your predecessors did. Where to start?

I'll go overseas to ask our allies for help. GOTO page 3

I'll keep the fight on the domestic front. GOTO page 4

Acoustic oi! invasion

Jon Twitch

When I first started promoting shows in Korea, starting with the Slackers in 2007, there was a need for me. I was able to communicate and get things done. Since then, things have opened up significantly and we have bands coming here multiple times a month. If the Slackers returned, it would be Team New Generation of Ska or Kingston Rudieska handling it, so no need for me.

Some time ago, I told myself there are only a few bands I would bother to bring here.

As it turned out, one of them contacted me. Jenny Woo is a globally based sort of musician, based in Europe and highly mobile as a soloist. But she's actually from Edmonton, same as me. Back in the late 1990s to 2003, we were in the same circles but didn't know each other that well. I moved away and she did, and both of us grew up as people and got better at what we do, but Edmonton is still at the core of both of our identities.

This tour is an experiment in vertical integration, as I've taken control of putting on the show and promoting it, both in this zine and in a daily newspaper. Probably not that ethical, but whatever.

English after the Korean translation (which is probably very poor).

Broke: 우는 한자가 한자와 다르지만 한국 성이다. 하지만 아시아의 정체성이나 뿌리와는 상관없이 이곳의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당신의 민족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Jenny: 와, 사실 난 "우"가 한국 성이라는 것을 몰랐어...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최고의 김치 요리법을 부탁하는지 알겠어. 사실, 아버지는 중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했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디스크를 먹고 중국어로 몇 마디를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라고는 느끼지 않는다. 나는 캐나다인이 되고 펑크 록에 빠져 있고 특정 민족에 반대하는 것과 훨씬 더 많은 것을 동일시한다고 생각한다.

Broke: 또 다른 질문, 어떤 종류의 스킨헤드인가? 이런 질문들을 처리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스킨헤드는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지나쳐서 지나가고 있는가?

Jenny: 나는 우리가 "모든 스킨헤드는 인종차별주의자다"라는 서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스킨헤드는 여전히 비교적 밀교적인 하위문화이며, 불행히도 스킨헤드가 인종차별과 동의어라는 것은 언론(그리고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과 매우 관련이 있다. 사실, 스킨 헤드는 60년대 영국의 다문화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인종에도 불구하고 계급 단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스킨헤드 하위문화가 인종적 편견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찢어놓는 것보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믿는다. 나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내가 스킨헤드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킨헤드가 아니라는 사



Jenny Woo

실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내가 끔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은 무지와 증오의 결과이며, 나는 인종차별이 현장 안팎에서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스킨헤드가 되는 것이 인종차별에 맞서는 정치적 싸움과 동의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더한 일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하위문화와 동일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이 되어야 한다.

Broke: 에드먼턴에서의 초기 펑크 시절에 대해 말해보세요.

Jenny: 나는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펑크)하위문화에 들어갔다. 나는 펑크 록커로서 사춘기의 반란을 시작했지만 가치와 음악 때문에 스킨헤드 하위 문화로 더 많이 옮겨왔습니다. 나는 지역 스킨헤드 장면에서 나이 많고 현명하며 경험이 풍부한 모든 사람들을 존경했다. 인터넷이나 지역 음반 가게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받은 것은 대부분 우리 앞에 온 사람들의 수작업이나 복사 테이프였다.

Broke: 어쿠스틱 오이의 전체 개념은 적어도 외부인에게는 매우 모순적으로 적어집니다.

Jenny: 많은 사람들은 어쿠스틱 음악과 oi!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킨 헤드 음악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시끄럽고 왜곡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

만 나는 모순을 보지 못한다. 나는 민속 음악이 사람들과 사람들이 쓴 단순하고 정직한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킨 헤드 음악은 노동 계급의 삶과 생존을 위한 투쟁에 관한 음악입니다. 그들은 일상 생활, 좌절감 및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춘 반 상업 장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coustic oi!를 장르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위해 연주하지는 않는다. 나는 주로 나 자신을 위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것은 자기 표현의 훌륭한 방법이며, 그것은 나의 더 큰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는 겸손하고 영광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온라인과 직접적으로 정당화에 대한 요구를 대부분 무시합니다. 나는 증명할 것이 없고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Broke: 당신의 음악은 또한 대체 국가와 캐나다 사람들로부터 크게 끌어옵니다. 캐나다에서 온 나는 이런 음악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다. 그럼, 펑크/oi!와 컨트리/민속은 어떻게 당신의 머릿속에서 교차할까요?

Jenny: 나는 민속 음악과 oi!가 노동 계급이 노동 계급을 위해 쓴 음악 장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차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oi 음악을 단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기타로 벗기면 가사와 스킨 헤드 값이 훨씬 더 분명하게 전달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나는 왜곡 뒤에 숨지 않고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용기와 끈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Johnny Cash, Leonard Cohen, Corb Lund, 심지어는 약간의 음악의 힘과 힘에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배드랜드 같은 음향을 연주하는 밴드들

Broke: 나는 "스킨헤드들과 같은 것은 없으며 스킨헤드들의 걸 만이 있다"고 농담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펑크를 입은 여자들은 어떤 장소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Jenny: 솔직히 나는 스킨헤드가 여성들에게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주류 문화는 여성의 외모와 성욕을 토대로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스킨 헤드 하위 문화는 충성심, 지역 사회 및 성취에 대한 자부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스킨헤드 가치는 내가 예전의 사람보다 더 강한 버전이 되었다. 말하자면 주류 문화의 여성혐오가 스킨헤드 장면으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스킨헤드 장면 자체는 상당히 여성혐오적일 수 있다. 나는 항상 반 인종 차별 주의자 또는 반 파시스트가 현장에서 가장 절대적인 요구 사항이라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성 차별주의는 여전히 표준입니다. 대부분의 축제와 콘서트에서 남성보다 무대에 여성이 훨씬 적다는 것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바벨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펑크와 oi! 여성이 벽을 무너 뜨리고 주류 사회가 만드는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성차별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불러내서, 자매, 딸, 파트너

Your grandkids don't need to go to university, which will only indoctrinate them against your princess

and her father. Let's be honest, they were always pretty dumb anyway. And there are no jobs anymore. So

anyway, now you have money to fly overseas. Where to?

I'm going to America. GOTO page 5 I'll go to the power behind America, Israel. GOTO page 7

너, 친구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이 장면을 더 잘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성을 지원하고 성 차별에 맞서서 우리는 진정으로 대안적인 문화로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진정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Broke: 내가 도착했을 때 한국은 약 6 개의 매우 좋은 oi 밴드가 있는 매우 통일된 펑크 장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0이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여행 했으므로 아마도 그에 대한 좋은 판단일 것입니다. 오이는 죽어 가고 있습니까? 피부가 더 이상 새로운 피가 들어오지 않고 노화되는 곳마다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킨헤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일까?

Jenny: 전 세계적으로 당신이 묘사하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하위 문화에 노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더 좋은 나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이를 듣고 있습니다! 접근이 증가해서 생긴 거고요 또한 축제와 콘서트를 통해 사람들을 여행하고 연결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펑크와 오이에 초점을 맞추는 유럽과 북미에 더 많은 축제가 있다고 믿는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카타르에 있는 한 사람에게서 작은 축제를 조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나는 시베리아 북부 지역에서도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까지 스킨헤드를 만나게 되어 기뻐다. 세상의 가장 먼 곳까지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모든 하위 문화는 특정 도시 나 국가에 누가 공연을 조직하거나 밴드에서 연주하거나 레코드를 내야하는지에 따라 봉우리와 계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어떻게 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Broke: I know it's considered bad form to ask "What kind of Asian are you?" But when you're touring Asia it's a little more complicated. Woo is a Korean surname, although the Chinese characters are different from the Chinese surnames. However you relate to any kind of Asian identity or roots will be of note to locals here. So...what kind of Asian are you?

Jenny: Wow, actually I had no idea that "Woo" was a Korean surname... now I know why so many people ask my for my best kimchi recipe, haha. Actually, my father immigrated to Canada from China, and my mother from Scotland. I grew up eating dimsum and speaking some Chinese words in the house, but to be honest I don't feel extremely "Chinese." I think I identify much more with being Canadian, being into punk rock, and just being as opposed to any particular ethnicity.

Broke: Another question you're probably used to, what kind of skinhead are you? Everyone in the scene here will be totally savvy about all this, but I still hope to reach a wider audience who won't know. In my day, every skinhead had their own "spirit of '69" speech always ready, so I'm curious to hear yours. Do you still even have to deal with questions like this, or has everyone moved on from the whole "skinheads are racist"?

Gotta keep it domestic. No sense relying on other countries. If only there was a word for that in



Jenny: I think we are far from the narrative of "All skinheads are racist." Skinhead is still a relatively esoteric subculture, and it unfortunately is very much associated in the press (and therefore in peoples' minds) that skinhead is synonymous with racism. Truthfully, skinhead was born out of multicultural neighborhoods in England during the 60s, and it was about class unity despite race. I believe skinhead subculture has done more to bring people together than it has to tear them apart on the basis of racial prejudice. I am against racism not because I'm a skinhead or despite of the fact that I'm not a skinhead... but just because I am not a horrible person. Racism is an effect of ignorance and hatred, and I don't think it should be tolerated either inside or outside of the scene. That being said, I don't think being skinhead is synonymous with a political fight against racism either — it's much more than that. Being not a racist should be the norm, not something that we have to adhere to just because we identify with a certain sub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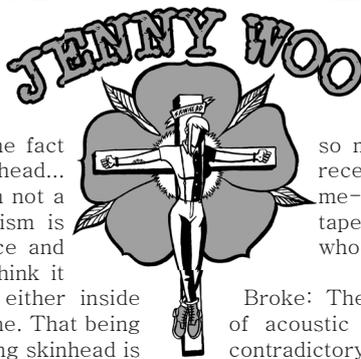
Broke: A year or two ago, Walter Dunn of the Texas ska band the Stingers told me he ran into you somewhere, I think in Europe. According to him, you credited me with getting you into ska, but I have no specific memories of this. What was he talking about? And, what do you remember of me from back in Edmonton? It's been almost 15 years and to me Canada almost seems like a foreign country.

Jenny: Haha, I do remember running into Walter Dunn, but I can't remember sharing that exact story

your language.

Anyway, your fight has two fronts, but which do you go after first?

with him. I got into the subculture between 1997-2000, and I'm not sure if you were still living in Edmonton at the time. However, I did have a very good friend named Megan who knew you through her boyfriend (also Jon) at the time. I started my adolescent rebellion as a punk rocker, but moved more into skinhead subculture because of the values and the music. I looked up to all the older, wiser, and more experienced people in the local skinhead scene. We didn't have internet or a lot of local record shops (as you know), so most of what we received was hand-me-downs or copied tapes of the people who came before us.



Broke: The whole concept of acoustic oi sounds very contradictory, at least to outsiders. Then again, those same people would probably struggle even more with the concepts of skinhead girls and Asian skinheads. Do you ever find people demanding you justify yourself, either in person or online? If so, how do you deal with it?

Jenny: Story of my life — day in, day out. A lot of people think acoustic music and oi! are contradictory because they believe skinhead music is inherently aggressive, violent, loud and distorted. However, I don't see the contradiction. I think folk music is simple, honest music that was written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and skinhead music is music about working-class life and the struggle to survive. They are both anti-commercial genres that are focused on daily life, frustration and community. Many peo-

ple cannot accept "Acoustic Oi!" as a genre, but I don't play it for them. I play music for myself mostly — it's a great way of self-expression, and it's my greater purpose. If people like it, I am humbled and honored. If they don't, then they just don't have to listen. I mostly ignore the demands for justification online and in person — I've got nothing to prove and life is too short.

Broke: Your music also draws heavily from alternative country and Canadian folk. Coming from Canada, I have so many memories of this kind of music, not just Corb Lund, but over here in Korea everyone just knows Dropkick Murphys and Flogging Molly (and even then we're talking about a decade ago). So, how do punk/oi and country/folk intersect in your head?

Jenny: As I mentioned in the previous response, I do think that folk and oi! music naturally intersect because they are both genres of music written by the working class for the working class. I thought if I wrote oi! music stripped down to just one voice and one guitar, the lyrics and the skinhead values would come through even more clearly. Moreover, I wanted to demonstrate courage and tenacity (i.e. live the values I speak about) by not hiding behind distortion, and simply not giving up. I was deeply inspired by the strength and power of the music of Johnny Cash, Leonard Cohen, Corb Lund, and even some oi! bands that played acoustic such as Badlands.

Broke: For me, quite a lot about your music is a rare reminder of my homeland. But for many others, even references to wild roses will seem a little odd. For someone as well-travelled as you, why bother with references to where you're

I'll free the princess. GOTO page 11
I'll go after the current president. GOTO page 13

I'll free the princess. GOTO page 11
I'll go after the current president. GOTO page 13

I'll free the princess. GOTO page 11
I'll go after the current president. GOTO page 13

I'll free the princess. GOTO page 11
I'll go after the current president. GOTO page 13

I'll free the princess. GOTO page 11
I'll go after the current president. GOTO page 13

I'll free the princess. GOTO page 11
I'll go after the current president. GOTO page 13

from, especially when you seem to be based in Ottawa, your record company is German, and you live in (which country)? How important is cultivating an identity based on region, especially when that region is as obscure as Alberta? What does Alberta mean to you?

Jenny: I wrote the song "Alberta Rose" when I was still living in Alberta. I wrote it because Alberta is the foundation for my roots, and because the lyrics and feeling of that land were authentic to me at the time I wrote the song. I do identify with being Albertan because Albertan landscape and culture are the reference points of my childhood. Of course, the more I see of the world the greater my perspective grows, and therefore who I am cannot be defined completely by where I'm from. However, I will always have a longing for "Wild Rose Country" because for me now, it symbolizes my own youth, my innocence, and my glory days.

Broke: You're obviously very well-travelled, having spent a great deal of time living and touring abroad. Do you consider yourself an expat, or how do you see it? What effect has so much life on the road had on you?

Jenny: I do consider myself an expat, but even more than that I consider myself a nomad. I have been traveling around this Earth for more than a decade, and I try to learn as much from life on the road as possible. As opposed to feeling weary from my travels, I find I have an increased sense of curiosity and wonder about how the world works, and how I fit into the big picture. I have become more humble, and I have become a lot wiser. I'm less quick to judge others, and I tend to ask a lot more questions now before jumping to conclusions. I am able to sleep on pretty much any surface and under any conditions. The downside is that I have friends all over the world, but rarely do I see everyone I love in the same room. I find it hard to "belong" in places because my identity is spread out and it's not anchored anywhere. I'm free, but freedom often is accompanied by solitude.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but the path less traveled is often a lonely road.

Broke: I used to have a friend who joked "There's no such thing as a skinhead girl, only a skinhead's girl." What is the place of women in punk, what should it be, and what do you think could fix it? In Korea we've been grappling with this, as women have been disappearing from the scene, and we have had a few #MeToo-style scandals among our ranks.

You show up in the USA, the Land of the Free. Getting through their customs is a bitch, and they confiscate all your duty-free goods.

After waiting a few hours in a long standing line, you make it to immigration. "Name?" the surly immigration officer asks you.

"You people sure are ugly," you

Jenny: I honestly think that skinhead is a great scene for women to be a part of. Whereas mainstream culture tends to value women on the basis of what they look like and their sexuality, skinhead subculture is based on loyalty, community, and pride in one's accomplishments. Skinhead values have made me a stronger version of the person I used to be. That being said,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misogyny of mainstream culture leaks into the skinhead scene, and the skinhead scene itself can be quite misogynistic. I always found it strange that being anti-racist or anti-fascist is an absolute requirement for most in the scene, and yet sexism is still the norm. I find it discouraging that there are far fewer women on stage than men in most festivals and concerts, however I am optimistic that this will change. Punk and oi! should be a place where women can tear down walls and break through the barriers that mainstream society creates. By calling people out on their sexist attitudes, by supporting our sisters, daughters, partners, and friends, we can change this scene for the better. By supporting women in the scene and by taking a stand against sexism we can make it a truly alternative culture, and a true representation of its own values.

Broke: Korea when I arrived had a very unified punk scene with about half a dozen very good oi bands, but nowadays we have zero. You've travelled so much, you're probably a good judge of that: is oi dying out? Are skinheads everywhere aging with no more new blood coming in? Or is it just us?

Jenny: I think globally it's the contrary of what you're describing.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has given the subculture a huge boost in exposure (for better or for worse) and a lot more people are listening to oi! as a result of increased access. It's also getting easier to travel and to connect people through festivals and concerts. I believe there are now more festival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focused on punk and oi! than ever before. I even just got a message from a person in Qatar, stating that they were organizing a small festival there. I have had the pleasure of meeting skinheads even in the most northern regions of Siberia all the way to Argentina's Patagonia, and so it seems that oi! is reaching even the farthest corners of the world. In my experience, every subculture has its peaks and valleys depending on who is in a certain city or country to organize gigs or play in bands or put out records. The people may come and go, but somehow the spirit never dies.

remark, "not like in the movies."

"English?" he says. "You speak English?"

"My name is Park Sa-mo," you say, showing your passport carefully prepared for this mission.

"Purpose of visit?"

"I'm here to overthrow my government."

JENNY WOO



1. DIP 1ST ANNIVERSARY PARTY

Club DIP, Seoul

Saturday, 10.13, 1600

20,000 won (unlimited VODKA & TEQUILA)

Jenny Woo with Dead Buttons, ...Whatever That Means, Full Garage, Octopoulpe, Pilsong, Hi Teen Pops, The Punk Drunk Love, Flush, The Apop, Mantilla, Flug, Jahero, DJ YouTube, and more

2. 룩비욘드 어반 락 페스티벌

Look Beyond Urban Rock Festival Day 3
Cheonan

Sunday, 10.14, 1400

10,000 won (limited free food and drinks)

Jenny Woo with Kitsches, Turn For Our, Arryam, Smiles of a Summers Night, Slant, Cutt Deep, Octopoulpe

3. Jenny Woo at Club SHARP

Club SHARP, Seoul

Sunday, 10.14, 1700

10,000 won (free entry for minors)

Jenny Woo with ...Whatever That Means, Talkbats, Billy Carter, Seoul Dolmangchi

"Excuse me, ma'am?" he asks. "Did you say you're go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of These United States?"

"No, the government of my own country, Korea."

He stamps your passport and lets you through. Good thing I didn't give you more choices here, or this story

would be all about you being stuck in US customs.

So, now what? How will you reach the leader of this great nation?

I'll go to a Trump rally. GOTO page 6.

I'll reach Trump through his associates. GOTO page 9.

Pistol-whipped

Jon Twitch

After the DMZ Peace Train Festival announced that Glen Matlock, the original bassist of the Sex Pistols, was coming to Korea, I started changing how I was covering the event, held way out in Cheorwon. We talked and I got a few quotes out of him, but I told him what I really wanted was a chance to sit down and interview him more thoroughly.

When he returned for Zandari, I had that chance. I told him I wasn't interested in getting stories about Sid Vicious and all that, which left him relieved. Instead I approached him like I would a contemporary musician from the UK with a different music scene from the one here that I wanted to understand.

Having met him a few times now I like the guy, and after having seen it all once, I find myself more interested in his current music rather than watching him get in front of a backing band and perform all the Sex Pistols classics. Which was wish fulfillment for more than just me, guaranteed. I suspect we'll see him around here again someday.

Broke: You basically were in this music scene before it had a name as far as I know.

Glen: Yeah

Broke: And over time it's changed so much that I think it really means something different today.

Glen: If anything at all. It does seem to mean a lot to people around the world.

I think all of us just basically wanted to play some music is all, and the way it came out is the way it came out, very happenstance, and just a conglomeration of people around it. And then it became known as punk.

I get to travel a lot these days and it seems to not go away, which seems like a good thing. But when people expect you to do the same old songs these days, which I don't mind doing, but I'd rather — I've given you a copy of my album which is more where I'm at these days.

Broke: You said people just wanted to play music and this is just what came out. Back when you did it it was original, but nowadays there are a lot of bands doing the same thing and it's not original.

Glen: I think the difference is, we didn't know what we wanted to



Glen Matlock performs Oct. 6 at Zandari 2018.

sound like we just knew what we didn't want to sound like

We knew we didn't want to sound like a prog rock band, didn't want to sound like a pub rock band, which was all over guys playing R&B, you know R&B from back then, but we was gonna do it anyway and through a process of negation we ended up doing what we were doing and that became what was known as punk. Other ppl copied us and that was like a blueprint for it

There was so many different things we liked. I liked the Faces. Steve and Paul liked the Faces. John hated them. We all liked Tamla Motown a bit. We all liked the Spiders from Mars. We all liked a little bit of Velvet Underground. We were hip to Iggy and the Stooges. I liked the Kings and the Who and the Yardbirds and Small Faces.

Broke: I could see how you arrived with your sound in a scaled-down way.

Glen: Yeah but in the writing of the songs and the construction of things it's got nothing to do with the Ramones or the Kingsmen, it's this sort of weird thing that came out really simplified.

Broke: There's always been a debate in punk music over is originality important or is it best to find your thing and keep doing it? Like when John Lydon moved on with Public

Image Ltd, he was kind of, "I'd already done punk and wanted to do something else" —

Glen: I was like that, I had the Rich Kids. We weren't that successful but we had our time in the sun. I thought we'd already done punk and the last thing I wanted to do was get another singer and do Sex Pistols division 2. Who wants to do that? I've already done it. I'm sure John felt the same thing. I think that's just part of human nature, you want to move forward a little bit.

Broke: The Korean punk scene average age is probably in its mid-30s now. do you see it as it's gotta be a youth movement, or is it okay to age?

Glen: I think it's an attitude really. I think people will suck up to people and toe the line, or they don't. Whether that makes them punk or not I don't know.

On my record I've got Earl Slick, he's no spring chicken but he's still got it. Slim Jim (Phantom, Stray Cats drummer) he's 10 years younger than me but he's in his 50s. I'm quite proud of one track I've got Chris Spedding playing guitar, he's 77 now, but he's still got it. I think you've either got it or you don't, it doesn't matter how old you are.

Broke: Reassuring to hear.

Glen: But maybe I'm trying to kid myself.

because your daughter was unable to land a good job or a rich husband, because her skin was naturally too dark.

Everyone takes their seats, and Trump comes out. "Friends, congratulate me!" he requests.

The crowd goes wild, and you applaud along with it.

"There is a threat that walks among us, well not among me and my family because we live in heavily protected compounds, have you seen the White House? Super bougie I know, right, I know, super bougie, but what you don't see is all the hidden tactical gadgets. Secret underground hangars housing the

gay bomb, all loaded and ready to go in aerial drone, and Mike Pence's even more secret straight bomb. It's amazing, right? Who knew bombs turn you gay? And straight! People, we have the best drones. We can hit anything, believe me. We could turn Pyongyang into the gay capital of the world, or cure Castro Street!" "Get to the point!" someone shouts. "What is the threat that walks among us? Is it Mexicans?" Trump makes a gesture and the shouter is removed.

"Korea," he says. "They have a free trade deal with us, and they are robbing us blind. They have a trade surplus, which I don't understand,

Broke: Do you still identify with that identity at all? Do you look at yourself and see something punk, or is it something you've grown out of? Or it's a legacy you've grown out of and you're annoyed it's following you around?

Glen: I'm not annoyed. It's something to be quite proud of I think, but can be a bit of a sword of Damocles where people expect one kind of thing and I kind of resolutely don't want to give it to them too much.

I dunno, never really known anything different. I saw some interview with Keith Richards where the guy asked him something simple like "how much is a pint of milk?"

He said "hey man don't ask me I've been a rockstar all my life."

Well I haven't been a rockstar all my life but I don't know any different.

Broke: I recently saw something about Steve Jones' book, he really wanted to get on a record label and find success. But these days there's so much talk about DIY and indie.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s that good or is it better to get hooked up to a money hose?

Glen: I think if you write songs and you come up with something, you want as many people to hear it as possible and not as few. I know the bands that didn't get signed started indie labels, so draw your own conclusions for that.

But then because it was indie, it became its own thing, Stiff Records and all that. I dunno, you just gotta use whatever tools you can. When we started out, there wasn't really any independent labels. Stiff didn't even exist. Yeah anybody could've paid and gone and had 500 records made. But it's come full circle and that's what ppl are doing these days anyway, just because of the flux of the music industry.

Broke: I get the feeling you could start a great band today and not get noticed unless you got really really lucky.

Glen: Yeah or you're very clever and crafty and do all the right moves. You gotta be lucky and crafty and astute and clever and meet the right people and be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That's what we did, we was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I think we all arrived there be-

because what do we get in return for imports, just goods and services? We have a yuge army presence there mostly to contain China, and they don't pay for it."

You stand up on your seat. "You're wrong! We are allies! Just give us a chance!"

Trump squints at you. "What'd she say?"

"I'm from South Korea!" you should back at him.

"Knock the crap out of her, would you?" He turns his back and walks off stage, and his followers advance on you.

THE END

It isn't hard to find a Trump rally. It's harder getting in, but when the organisers see a nonwhite woman wants to attend, they bring you to the front of the line and set you up with front-row tickets.

As you enter the stadium, you hear people all around you chanting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you join in even though you don't really know of a time when America was less great.

Some chant "America First!" and you chant along, because America can't help your country if it doesn't help itself first.

Some up front chant "White power!" and you chant along

cause we all had a hunch. We all assembled at Malcolm McLaren's shop — he didn't form us but we formed ourselves — in this fantastic nutty place that he had because we all gravitated there for different reasons but just thought something would come of it. But you can't manufacture it.

Broke: We're in Korea where the music industry itself is so heavily manufactured it resembles an industrial product, K-pop. Do you ever listen to that stuff?

Glen: No, I don't really know who's who in it.

Broke: Yeah, it doesn't really matter, that's kind of the point.

Glen: Yeah, but I've met a few good people like Crying Nut guys and Chacha (former No Brain singer)—

Broke: Oh, that's not the same thing.

Glen: No, I wouldn't've thought it was. They seem kind of heartfelt.

Broke: They're in a lot of ways the exact opposite of the K-pop industry.

Glen: Yeah I would've thought so.

Broke: That's one thing I really don't like about this area, Hongdae, it's kind of played out through gentrification as a battle between indie music and K-pop, and K-pop has basically won.

Glen: But maybe it's the same in England, you know with Simon Cowell and X-Factor. It was always like that even when I was a kid.

There was never a real golden age, apart from maybe the mid-to-late 60s. There was the best TV show called "Ready Steady Go." You could see the Yardbirds and the Stones, Dusty Springfield, all on the same programme. It was the best programme ever.

Broke: We have this other problem like what you were saying, where there are audition TV shows that present a new kind of path for bands to find success. Rather than sweating away in some dingy basement club, they can get on TV and get voted by the masses.

Glen: The thing is, they put on certain kinds of things, so people aspire to be that certain kinds of thing and end up putting out more of that certain kind of thing, and it's all a bit naff really.

Broke: So both the UK and Korea have had that problem.

Glen: I think it's a worldwide thing really.

Broke: I've always wondered, there was really a big presence of bondage gear in early punk. What was behind that? Was it just people trying to be shocking?

Glen: I don't think there was any sexual fetishism involved. I don't think people really thought it through, they just thought some of the stuff looked kind of good. Some of the bondage stuff was made out of fabric, not leather. It wouldn't be very binding. The first thing about it was that it made it awkward to run for the bus, or if some teddy



Glen Matlock with members of Crying Nut and No Brain at DMZ Peace Train Festival in Cheorwon, June 24.

boy was coming at you and you had bondage trousers done up too tight, you would get a whacking.

Broke: Was it also trying to be sex positive? Was it more open to people considered sexually deviant, like transgender or gay?

Glen: I think through punk it opened the doors a little bit in a way that was kind of a little bit more groundbreaking.

I remember when we started going out, doing gigs and things, there wasn't many clubs to go to, and Malcolm and Vivienne (Westwood) were quite sort of on the scene, you know where can you go for a drink, "hey let's go to the Sombrero on Kensington High Street!" The Sombrero on Kensington High Street was a gay club. I remember, not that we were gay, but we were hanging out with the people there doing the hustle. They were some of the more kind of left-field people, always there with the fashion trends, so they were always a bit

on the cutting edge a bit more.

Broke: What about attitudes toward women? From what I've read, women in the scene weren't really treated nicely.

Glen: In the punk days?

Broke: How were attitudes toward women, and what was their place? Could they be equals with men back then?

Glen: I think there were quite a few girl groups, I can think of the Slits and Raincoats straight away, and X-Ray Specs. They were just, other bands. Were they any good? Well some of them were and some of them weren't, and that was the yardstick, it wasn't because they were girls. I don't think a lot of people even thought of them like that.

Broke: I want to figure out what catches your eye over here. This is your second time over here. I really consider the scene that Zandari represents to be small and not well enough organised.

Glen: You think that or do I think that?

Broke: I think that and I think you've come at the best two events we have.

Glen: Well I know it's all in its infancy and they're trying to find out as they go along. I don't normally come to things like this, but somehow I got involved. The whole thing to go to the dm-zed, dm-zee, thing was very interesting to me and I just liked the people there. I thought they were keen, I didn't think it was that badly organised, I thought it was quite well organised.

Broke: I think everyone organises well, just something about live music here is dying out. You go to shows here and it's all older people, and you look at people in their 20s and they're all listening to DJs.

Glen: Yeah but that's the same all around the world I think, a certain strata of people. You go where there are rock music fans whatever rock music is these days, and there's people who like disco music and people who maybe want to have a dance and have something that's not too taxing.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really.

Some ppl don't do anything all day long, and then they go to a rock gig just to feel like they've done something.

Broke: I can relate to that.

Glen: I'm just here having a look-see. It seems to be that asia's calling a little bit. And I enjoy being here. To me it's fresh and less jaded.

Broke: I really think a lot of music today wouldn't be possible without the Sex Pistols.

Glen: Yeah but there was always people before us. I think the Kingsmen were important before us. And then the Kinks came after them.

It's that whole thing that Isaac Newton said, he said he's just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You book a flight to Israel, but when you arrive the country is full of dirty-looking dark-

skinned people.

You collect your luggage and leave the airport to hail a taxi.

"Where to?" the taxi driver asks.

Where is the Jewish seat of power?

Take me to the World Bank. GOTO page 8

Hollywood. GOTO page 8

Talking with the Talkbats

Jon Twitch

I interviewed Talkbats a few years ago, but figured it was time to talk to them again. They're playing my show, and they have a two-song album coming out soon. Last time we talked in person with a translator which was quite a lot. This time we talked online, and I think the answers are from the band collectively but can't guess more than that, other than one answer comes straight from Nagi.

Broke: Can you please introduce the current lineup of Talkbats? Has it stayed the same since last time I interviewed you? I recall there was talk of adding brass instruments last time too, so did that happen? 현재 토크배트 라인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인터뷰한 이후로도 같은 상태로 남아 있었나요? 지난번에도 금관악기를 추가하는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Talkbats: 보컬:김송이 / 기타:나기 / 기타 윤인성, 양정현 / 베이스:우자 / 드럼:현민

이지만 이번 쇼에서는 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전 멤버인 기철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두명의 금관악기 멤버가 있었지만 저희의 개성과 맞지 않아 기존 악기 구성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Vocal: Kim Songi / **Keytar:** Nagi / **Guitar:** Yoon In-seong, Yang Jeong-hyeon / **Base:** Woo-ja / **Drums:** Hyun-min

However, for this show, the for-



mer member Ki-cheol decided not to participate because of personal circumstances. And there were two brass members before, and we decided to go as we did in the existing lineup because it did not match our personality.

Broke: Nagi, is it true you re-scheduled your wedding to play at this Sunday's Jenny Woo show? I think it's an exaggeration but I don't know the specifics. How does your fiance feel about it? Also congratulations! 나기씨, 이번 일요일 제니 우 쇼에서 결혼식 일정을 변경한 게 사실인가요? 과장된 것 같지만 구체적

Talkbats in their natural habitat, Club SHARP, on Dec. 9, 2017
인 건 몰라요. 약혼자는 어떤 느낌일까요? 축하해!

Nagi: 감사합니다! 결혼식 날짜를 변경한 건 아니지만 결혼식 준비로 굉장히 바빠서 이번 공연을 못할 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니우 내한에 꼭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바쁜 와중에도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Thank you! I didn't change the date of the wedding, but I was so busy preparing for the wedding that I almost couldn't do it. However, I decided to participate in this Jenny Woo show in the midst of my busy desire to be together.

Broke: At our previous interview, I was told the key theme of Talkbats songs is "friendship." Is that still accurate? Please tell me a bit more about your newest release coming out soon. 이전 인터뷰에서 나는 Talkbats 노래의 핵심 주제가 "friendship"이라고 들었다. 그게 아직도 정확합니까? 곧 출시될 최신 버전에 대해 좀 더 말씀해주세요. 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제목, 그들이 무엇인지, 언어 등)

Talkbats: 아직도 토크배츠의 핵심 주제는 '우정'이 맞고, 이번 발매할 싱글에는 반짝이는, 그리고 소닉이라는 노래가 수록됩니다. 이 두 노래 모두 한글 가사로, 우정을 노래하는 곡들입니다. 저희 공연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모두들 아실만한 곡이랍니다!

The key theme of the Talkbats is "Friendship," and the singles to be released are "반짝" and "소닉." Both songs have Korean lyrics, and are about friendship. They're songs that everyone who comes to our shows knows!

Broke: Do you have any further plans, such as for a music video or a full recording? 뮤직 비디오나 전체 녹음 같은 미래 계획이 있나요?

Talkbats: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해야겠죠?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it, but I haven't got a specific plan yet. I guess we'll do it soon.

Broke: Can any of you comment on the future of the New Generation of Ska Festival? 여러분 중 누가 새로운 스카 페스티벌의 미래에 대해 언급할 수 있나요?

Talkbats: 뉴제너레이션 오브 스카가 올 해에는 열리지 않아 아쉽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며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더 많은 스카 밴드를 관객에게 소개해주시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해외의 다양한 스카 밴드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I am sorry New Generation of Ska did not happen this year, but I do not think it will stop in the future. I hope to introduce more ska bands to audiences in Korea, so I hope various ska bands from abroad will come.

Broke: Is it my imagination, or has ska been getting a bit quieter lately in Korea? Do you know why? How can fans and bands support the scene and help it grow? 최근 한국에서 스카가 좀 더 조용해졌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팬들과 밴드들이 어떻게 그 장면을 지원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Talkbats: 한국에서 스카는 비주류 장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해졌다거나 그 이유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좋아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음악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를 포함하여 다른 스카 밴드들도 함께 도와가며 씬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In Korea, I think ska is quiet because we think it is a minor genre, or we cannot define why. We are just doing music we like and enjoy, and we are trying, and we think other ska bands, including ourselves, will help us make the scene!

Well, that wasn't what you were expecting. What now?

Onward to America, I guess. GOTO page 5

Rocket launchers, you say? GOTO page 24



The taxi driver looks back at you in annoyance. "You do know that's in America, right?" he says.

"You don't understand!" you protest. "My country is in ruins, its rightful leader imprisoned. I need you to take me to the

people who control America so they can overthrow the illegitimate government there."

"No, you don't understand," he retorts. "It is anti-semitic to assume we control the American government. Sure, we receive a ton of

money from them, and their politicians trip over their own feet to support our military conflicts, and our current president is quite aggressive. But unless you've come looking for rocket launchers, you're out of luck, lady."

Return of the Stone Hammers

Jon Twitch

When I set to bring Jenny Woo to Korea, there was basically no oi left in the country. After talking around and finding a lot of others shared my frustration, some of the members of Dolmangchi said they'd play a one-time reunion show. I've been hoping the tour would see a revival of the genre, and if this is the only outcome, I guess that's all I can ask.

Broke: Why did Dolmangchi break up? 돌망치는 왜 끝났지?

CG: 돌망치를 처음에 같이 결성했던 베이시스트 유영삼이 독일로 떠나게 되어서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돌망치의 노래와 가사의 절반 이상이 영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없이 돌망치의 색깔을 유지하기 힘들거라고 생각하고 해체를 하게 되었죠.

The band broke up when its founder, bassist Yoo Young-sam, left for Germany. Because more than half of the songs and lyrics of Dolmangchi were made by Young-sam, we thought it would be difficult to maintain the color of Dolmangchi without him.

Broke: The world has changed so much since I last interviewed you in 2015. Korea overthrew a terrible authoritarian president, and America elected a terrible authoritarian president. What political situations are most important to you right now? 2015년 당신을 인터뷰한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한국은 끔찍한 권위주의 대통령을 전복시켰고, 미국은 끔찍한 권위주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지금 당장 어떤 정치적 상황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가?

CG: 한국에서 대통령을 전복시켰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살고 있는 사회의 주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고,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 속에 각인시킨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년 간 한국 사회는 천천히 조금씩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이만큼의 발전이 앞으로 조금씩 이뤄질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남북 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은 지금 정부의 잘하고 있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의제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라는 것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사회는 껍데기는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진보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약자를 보살필 줄 모르고, 게이를 혐오하고, 리벤지 포르노를 즐기고, 난민을 경멸



Seoul Dolmangchi perform on June 15, 2015, at Monkey Business in Seochon.

하며, 인종차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법으로 두들겨 잡는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고 후배들을 때리던 밴드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선생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던 선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꼰대들 좇까라! 선생들 좇까라!" 라고 외치며 밴드를 시작했던 12년 전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전히 저 외침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주말 펑크션에 모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 think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n Korea was a very valuable experience for all of us. It was the moment when people proved that the owner of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is not someone else but ourselves, and it is the moment when we remember we are the owner of our lives. I think Korean society will slowly develop in the next few years, and I think the developm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enuri Party (Liberty Korea Party or LKP)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will be done little by little in the future. Especially, I think the government is doing well now that there are big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these days.

Despite all the good changes these days, I do not trust representative democracy or political party politics. The skin of Korean society seems to be changing greatly, but the inside is still authoritarian and violent. Many people who support the DPK still think they have advanced, yet they still do not care for the weak, hate

gays, enjoy revenge porn, despise refugees, and discriminate against other races. These things are not getting better when the Democrats take power. These things are not getting better by law.

I know the bands that hit their juniors because they're older. And I know teachers who beat their students because they're teachers. I remember myself 12 years ago when I started the band (Find the Spot) shouting "Fuck the kkondae (older person who abuses privilege)! Fuck the teachers!" Still, that cry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situation for me, and that's why we gather every weekend in the punk scene.

Broke: Tell me about reuniting. How did it happen? Is it the same lineup as before, or with a significant change? 재결합에 대해 말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전과 같은 회원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변화입니까?

CG: Skasucks의 보컬 류진석이 베이스를 맡게 되었어요. 나머지 멤버들은 그대로고 이번 공연은 일회성 재결합입니다.

Skasucks' vocalist Ryu Jin-suk will play bass. The others will remain, and this performance will be a one-time reunion.

Broke: If the reunion goes well, will you consider activating Dolmangchi again in the future? 동창회가 잘되면 돌망치 재결합을 다시 고려할 것인가?

CG: 그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일단은 일회성 재결합입니다. Jenny Woo의 한국 공연 때 한국의 Oi 밴드가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돌망치의 모든 멤

버들이 Jenny Woo의 팬이기 때문에 같이 공연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 세션 멤버를 구해서 일시적 재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내년 봄에 영삼이 한국에 가족을 만나러 오게 되면 그때 오리지널 멤버들로 다시 한 번 일회성 공연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Nothing is certain about that. It's a one-time reunion. I thought it was a shame there were no oi! bands in Korea when Jenny Woo performed in Korea, and because all the members of Dolmangchi were fans of Jenny Woo, I wanted to perform together and got a session member for a temporary reunion. Maybe next spring, when Young-sam comes to Korea to visit family, we can reunite the original lineup.1.

Broke: If people want to hear more bands similar to Dolmangchi, what bands can you recommend? 사람들이 돌망치와 비슷한 밴드를 더 듣고 싶다면 어떤 밴드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CG: 우리랑 비슷한 것은 잘 모르겠고 우리 멤버들에게 영향을 준 밴드를 꼽으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Camera silence, Blitz, The Oppressed, Angelic Upstarts 같은 클래식한 밴드들이고, Rixe, Booze & Glory, Stage Bottles, Los Fastidios, ACAB, Hard Skin, Evil Conduct 같은 밴드들도 윌 타임 베스트로 듣고 있습니다.

I do not know what we are like, and if you think of the bands that influenced our members, they are basically classic bands such as Camera silence, Blitz, The Oppressed, Angelic Upstarts, and bands like Rixe, Booze & Glory, Stage Bottles, Los Fastidios, ACAB, Hard Skin, Evil Conduct are also best to listen to.

The Russian Embassy won't let you in, but Dennis Rodman is in town for a book signing. There is no lineup, because this is America and nobody reads books anymore, so you walk right up to him.

"Take me to your leader," you say.

"우리장군님?" he asks.

"No, the American one," you reply.

"I can't help you," he says,

"but these prostitutes are headed over to the White House after they're done here."

A group of about a dozen prostitutes come out of the back room. All are tall and East European. They agree to take you along with them.

You follow them into a long stretch limo. An assistant hands you a big 2L bottle of water, marked 66/125 gallons. Wait, you thought America was ad-

vanced, so why would they still be using imperial units?

"Drink up, ladies," someone shouts. "You're about to mee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h well, you get through that water fast. You're driven into the White House and everyone goes in through a back door. You all line up, and then a hideous ugly small man comes out and begins inspecting each

woman, putting his hand on her pussy, kissing her on the lips, and moving on.

Then he comes to you. "What are you, like a 3?" he asks. "I'll still grab you, but it'll be more out of courtesy than anything."

I'll let this hideous man grope me in order to further my mission. GOTO page 10.

I'm not letting this creep near me! GOTO page 10.

Drinking and Daegu

By Alisa Favi
Photo by Jon Twitch



Drinking Boys and Girls Choir play Zandari 2018 at Steel Face on Oct. 5

고 조금씩 준비는 했지만 마침 MJ가 다쳐서 밴드를 완전히 쉬어야하는 상황이 되어 온전히 앨범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Bondu: No it's not really been that long. We started playing together in 2012 and we haven't always worked that hard on the band stuff so our debut album took a while. We've been busy with work and life. We always had a lot of fun playing shows too so our first album was a bit delayed. I have constantly been writing for the album but really it was only when MJ had her accident and the band was forced to rest that we were able to concentrate on the record completely.

Broke: How do you write/compose songs? 어떻게 곡을 쓰/작곡하세요?

DBGC: 세명 모두 곡을 씁니다. 누가 작사작곡했는지 알고 우리의 노래를 듣는다면 각자의 특징이 느껴질 거예요. 결성 초기의 몇개의 곡은 모티브 하나로 작사 작곡을 함께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마리오, 오마이캘리포니아는 멤버가 함께 모여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죠.

DBGC: All three of us write the songs. If you know who wrote the songs and listen to them you'll see each song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at person. But some of the earlier songs like "Mario" or "Oh My California" had a singular theme. We would come together to write lyrics and make songs back then.

Broke: Please tell me about how you write your lyrics? What inspires them? 가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 말해 주세요? 무엇이 격려해요?

Meena: 사회적으로 느끼는 분노나 감정을 주로 이야기 해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구요. N3는 취업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현재의 젊은사람들을 보면서 느낀감정을 쓴 내용이고, She is sitting on the blue chair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쓴 노래입니다.

Meena: Mainly I write about the anger and emotions I feel in society. I get a lot of inspiration from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N3," for example, is about young people today whose only goal in life seems to be to get a job. "She's Sitting On The Blue Chair" is about fucking Park Geun-hye wanting to control people's thoughts.

MJ: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 중 그때그때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나

"What country did you say you wanted me to nuke?"

"Korea!" you tell him. "Not nuke, rescue our leader."

"On it," he says. "I'll have fixed everything by the time you return to your shithole country."

Okay! GOTO page 12

I should come with you. GOTO page 14.

After Daegu band Drinking Boys and Girls Choir got signed to Damnably in the UK, Alisa went after them for an interview. As we wait for the album to be released, we decided to share the interview in full here.

Pretty sure we've featured DBGC before, but every band gets a second one (ideally).

Broke: Can each member of the band please introduce themselves and tell me why/how they started playing music? 밴드의 멤버가 자신을 소개하고 왜 /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는지 말해 주세요.

Meena: 베이스를 연주합니다. 고등학교 때, 락음악을 처음 들었고 공부하면서 락음악이 많이 힘이 되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밴드에 들어가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대학교 입학 후 밴드부에 들어가면서 밴드를 시작했어요.

Meena: I play bass. I was in high school when I first heard rock music and I listen to it a lot whilst studying. I promised myself I would start a band when I entered university and so I did.

MJ: 드러머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TV에서 AIDA라는 걸밴드를 보고 멋져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10대시절 성당에서 기타와 드럼을 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마칭밴드 동아리도 했어요.

MJ: I am the drummer. When I was in fifth/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I saw this girl band on TV called AIDA. I thought they were pretty cool and so I spent my teenage years learning guitar and drums. By the time I was in high school I was in marching bands.

Bondu: 어릴때 크라이닝넷을 들고 밴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타는 18살 이후로 잡았다.

Bondu: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Crying Nut and thought it'd be cool to start a band. I picked up the guitar when I was 18.

Broke: How did DBGC first start? How did you all meet? Did you play in other bands before DBGC? 드링킹소년소녀합창단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DBGC 전에 다른 밴드도 했어요?

MJ: 송라이터 및 드러머로 활동하던 밴드가 사라진 후 미나와 함께 걸밴드를 결성했어요. 오래가지 못해 그림도 없어졌고 플라스틱키즈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나에게 함께 밴드하자는 연락이 왔고, 알고 있던 본두를 소

개시시켜주면서 만나게 되었죠.

MJ: After the songwriter and drummer of my previous band left, Meena and I decided to form a girl band. But after a while that band faded away and I started playing with The Plastic Kiz (Daegu band from 2012-14). During that time I asked Meena to start another band with me. I knew Bondu but finally met him around this time too.

Bondu: 명진이가 한번 대학교게시판에 "락밴드 합시다"라는 밴드멤버 구인글을 올렸어요. 그걸 보고 명진이에게 연락을 했었죠.

Bondu: MJ posted on the university bulletin board looking for band members to start a rock band. I saw it and contacted her.

Meena: 처음 밴드를 시작할때는 드럼을 연주 했었어요. 당시에 명진이랑은 같은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명진이와 밴드를 하려고 베이스로 전향을 했죠.

명진이가 말한것 처럼 걸밴드를 잠시 하다가 밴드가 깨지고 나서 3년정도는 일만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다시 밴드가 하고싶어졌고 명진이에게 연락했고, 본두를 소개받아서 셋이서 지금의 밴드를 하기 시작하거죠.

Meena: In my first band I was playing drums, and at the time I got to know MJ because we used the same practice room. After we decided to play together I switched to bass duties. Like MJ said we did that band for a bit then the band broke up and I didn't play music for about three years until out of nowhere I wanted to do music again. So I contacted MJ and

she introduced me to Bondu and the three of us started the band we are in now.

Broke: And what about the name? How did you decide on it? 이름은요? 어떻게 결정했어요?

DBGC: 결성당시에는 다른멤버가 한명 더 있었어요. 박소연이라고 기타를 연주했죠. 소연이가 10대 소녀였기에 거기서 이름을 연상해 온것 같아요. 우리모두 술을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멤버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항상 소년소녀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름을 만들었어요.

DBGC: There was another guitarist in the band when we started, Park So-yeon. She was a teenaged girl so I think the band name was trying to be reminiscent of her age at that time. Plus we all like drinking and all the members sing in our songs. We wanted to be inclusive of boys and girls. The name is a mix of all these things.

Broke: Bondu told me you have been a band for 10 years(?). Why did it take so long to release your first album? 본두는 저에게 드링킹이 10년(?) 동안 밴드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왜 첫 앨범 발매하기 너무 오래 걸렸어요?

Bondu: 사실 10년이나 된 건 아니고, 2012년에 처음으로 같이 연주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기도 하고 다들 일하느라 바빴고 또 공연도 꾸준히 꽤 많이 하면서 재밌게 지내다보니 first album 발매가 좀 미뤄진 것 같아요.

계속 앨범을 만드려는 생각은 해왔

standing. We are your allies. Please help."

"Sure, no problem," Trump says, going over to a big desk. He slides open a panel and presses a big red button.

"No!" you shriek.

But nothing happens.

A second later, a butler appears with a Coke.

"Relax," he says, taking a sip.

"Thanks," the hideous man says. "That mattress was previously used by Obama. Hi, I'm President Trump. You might remember me from Home Alone 2: Lost in New York, or Celebrity Apprentice."

"President Trump, I have come a long way to talk to you," you say. "My country needs your help. Everyone thinks our leader is authoritarian, but that is a misunder-

He reaches for you, and you immediately lose bladder control. Urine is trickling down your leg and dripping onto the carpet.

"Quick, bring it over!" the man exclaims.

Secret Service personnel drag a fancy mattress over and get it under you. It catches most of the urine.

After it is soggy with your urine, they haul it away.

문장이 있어요. 보통 그걸 발진시켜서 쓰곤 합니다. 주로 영감을 주는 것들에 영화, 풍경과 하늘이 있어요.

MJ: I use words and sentences that come to me from things I see and hear, and I'll develop them into songs. I mainly take inspiration from movies or things I see in nature.

Bondu: 일상생활에서 직접 겪는 경험들과 자조적인 생각들.

Bondu: I write about my experiences and moments of self-reflection in my daily life.

Broke: Some of your songs seem very political and angry, but then you have love songs too. Is that how you see life personally? Love and anger? 가끔 노래는 정치적이며 화가 나 것 같았지만 사랑 노래도 있어요. 그것은 인생을 개인적으로 보는 방법입니까? 사랑과 분노?

Meena: 길으므로 사랑에 대한 노래 인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다보니 사랑노래처럼 느껴지는 곡도 있는 것 같아요.

Meena: Sometimes it appears to be a love song on the surface but really it's not. I think there are songs that feel like love songs but at the same time it's expressing something else.

MJ: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쓴 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모호해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MJ: Right, there is no song that I personally thought was about love, but it may be because the subject is ambiguous about any feelings or emotion.

Bondu: '사랑과 분노' 정확하다. 나의 몇몇 노래들이 사랑에 관한 노래다. 그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Bondu: "Love and anger" is spot on. Some of my songs are about love.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life.

Broke: Daegu is a very conservative city. Does that change the music that you make? 대구는 매우 보수적인 도시 있는데, 이거 너의 음악을 바꾸나요?

Meena: 생활할때는 보수적이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음악을 만들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것 같아요. 아마도 대구에서 나고 자라왔기에 익숙해서 보수적인 분위기가 나에게 특별함으로 와닿지 않아서 인것 같아요.

Meena: My life feels conservative, but I don't think it has a direct impact on making music. Perhaps because I grew up in Daegu, I am accustomed to the conservative atmosphere so it doesn't affect me in any special way.

MJ: 요즘은 여러가지 약자, 소수자 혐오에 관련된 우리나라 전반의 보수적인 정서가 나에게 굉장히 무력감을 주고 있어서 바로 그 보수적인 "대구"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MJ: Nowadays there are a lot of conservative emotions in our whole country, not just in Daegu. These sentiments are aimed at the weak and from a dislike of minorities. It leaves me feeling very helpless.

Bondu: 대구에서 살면서 (보수적인 사람들 때문에)답답하고 마음에 안드는점은 많다. 음악을 바꾸는지는 모르겠다.

Bondu: There are many things I feel frustrated about (because of conservatives) whilst living in Daegu. But I don't know if it affects our music.

Broke: Please tell me about the Daegu music scene. Is it a good scene to play in? How does it compare with Seoul or Busan? 대구 씬에 대해 말해 주세요. 좋은 도시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이나 부산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DBGC: 다양한 장르의 밴드들이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밴드들이 생겨나고 있는점은 좋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마다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대구는 그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DGBC: I think it's a good thing that different bands of different genres are active and new bands are constantly emerging. I think the personality of each city is slightly different and Daegu has its own charms.

Broke: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playing music in Daegu (or South Korea)? 대구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데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세요?

Meena: 다른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비교할 수 있는점 없습니다. 굳이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메인 스트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유행에 민감하고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보니 인디밴드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eena: I've never lived in other countries, so I can't compare it really. One difficulty is that most people focus solely on mainstream culture. People have little interest in indie bands and are afraid of music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But I don't think this problem is unique to Korea.

Bondu: 음악을 계속 하기 위해서 다른일로 돈을 벌어야 하거나 삶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것. 다른나라도 그렇다는것을 안다. 하지만 한국은 청년들이 집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다. 평균적인 셀러리맨이 평생을 벌어야 겨우 살수(buy) 있을 정도로 집값이 비싸다.

Bondu: To keep making music, you have to make money on other things or give up some other part of your life. I know it is the same in other countries. But in Korea, it's hard for young people to make a living. The average worker has to work their whole life because housing prices are so expensive.

Broke: Please tell me about Damnably. How did you sign with them? Do you know how they found your music? Damnably에 대해 말해 주세요. 어떻게 사인을 했나요? 드링킹을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요?

Meena: 1집 발매하고나서 3달정도 뒤에 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나도 몰라요. 하하 메일을 처음 받고는 어리둥절 했죠.

하지만 이미 한국의 밴드들과도 교류가 있는 회사라서 쉽게 신뢰하게 되었고, 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eena: I got an email about three months after the release of the first album. How they knew about us I don't know! Ha ha. I was puzzled when I first received the email but I knew they had already been in contact with some other Korean bands so we easily decided to trust them and sign with them.

Broke: Apart from releasing your album in the U.K., will you tour there too? 영국에서 앨범을 발표하는 것 외에 여기에 투어도 할 예정입니까?

DBGC: 영국 뿐 만 아니라 더욱 많은 나라에서 투어하고 싶어요. 세부적인 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내년 4월쯤 영국투어도 계획중입니다.

DBGC: We want to tour not only in England but in other countries as well. The details have not been finalised yet, but we are planning a UK tour for April next year.

Broke: Damnably have signed two Korean bands now, one from Busan and one from Daegu.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Damnably 두 한국 밴드를 체결했어요. 부산에서 한개, 대구에서 한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Meena: 지역밴드의 독특함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저도 신기합니다.

Meena: Perhaps the uniqueness of a local band is more attractive? I was also surprised.

MJ: 저도

MJ: Me too.

Bondu: 세이수미는 정말 멋진밴드인데, 드링킹소년소녀합창단은 왜죠..?

Bondu: Say Sue Me are a really cool band, but is Drinking Boy and Girls Choir?

Broke: Did you ever think about moving to Seoul for the band? (Like 57 for example). 밴드를 위해 서울로 이사하는 생각이 해본 적이 있었세요? (오칠처럼 그렇게 했어요)

Meena: 명진이와 함께 잠시 같이 서울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 밴드활동은 안하고 일만했죠. 서울에서 활동하던 장면도 분명 있었지만 대구에서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서울로 이사를 한다면, 우리는 더욱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서울과 대구는 멀지 않아서 충분히 공연을 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구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요.

Meena: I lived in Seoul with MJ for a while, but we didn't play in any bands then, just worked. There are advantages if you work in Seoul, but living in Daegu is clearly better. If we moved to Seoul life would be more difficult. Seoul and Daegu are not far apart, so it is better to live in Daegu and feel psychologically sound yet still play enough shows in Seoul.

MJ: 동의 ... 그리고 요즘은 로컬 씬에 대한 자부심? 든든하게 있고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MJ: Agreed... and how about having pride in the local scene

these days? I want the local scene to be strong.

Bondu: 서울의 음악 인프라가 좋아보여서 가끔 고민하지만, 서울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특히 월세) 힘들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복잡한 도시에서 살기 피곤할것같다.

Bondu: Seoul's music infrastructure seems to be good, but I think living in Seoul would be too expensive (especially rent). Plus living in such a big city seems tiring.

Broke: Finally, please tell me about the Indonesia tour. How was it?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투어에 대해 말해주세요. 어때요?

Meena: 정말 잊지 못할 일주일이었습니다. 벌써 함께 공연한 SNK친구들이 그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의 음악을 듣고 따라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게 너무 놀랐습니다. 또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꼭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

Meena: It was an unforgettable week. I already miss our friends in SNK (Saturday Night Karaoke) so much I could cry! They showed us their hearts and we felt their sincerity during the tour. It was so surprising that there were people in Indonesia who listened to our music and followed it. We definitely want to tour Indonesia again.

Bondu: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멋진 adventure 였다. 그리고 정말 멋진 친구들을 만들었고, 유튜브 채널에 인도네시아 투어 V-log를 연재할 예정이다. Check please!

Bondu: It was a brief tour but a great adventure. And we made some really awesome friends. We will publish our Indonesian tour V-log on our YouTube channel soon. Please check it out!

Broke: What happened with the police in Indonesia? Did they raid your shows?

Meena: During the first show there was a guy lying down on the floor. We just thought he was drunk. So when we finished the show the police came and shut the venue with all of us inside. They made us all sit on the floor, be quiet and stay still whilst they lectured us. Of course it was all in Indonesian so we couldn't understand any of it but they seemed to be serious and very bossy. Later we found out that someone gave weed to the guy who was lying down and the owner of the venue thought he was dead so he called the police.

Then there was our third show, an outdoors show, just after we finished soundchecking the police showed up. They picked on us and used our visas as an excuse so we didn't play that show in the end. But SNK organised a secret show for us later on. We heard the police there are just looking for bribes most of the time.

(DBGC have had the police called on them in every country they've ever played in, 2 for 2 as it stands.)

Best to free your leader from prison first, so you can go after the communist fake president full force.

You go to the prison where you

know she is kept, and scout it out for a day or two. Perhaps you could break in and free her.

But maybe the easiest way is to

get yourself thrown in prison so you can break her out? What works best for you? Keeping in mind you are a middle-aged woman.

I'll infiltrate the prison. GOTO page 15

Let's make it a smash and grab. GOTO page 16

Dirty in Gwangju

Jon Twitch

I arrived late to a show, and afterwards I found myself sitting at the restaurant with members of Dirty Rockhon from Gwangju. They were nice and tried to feed me like I was a foreigner who didn't know what I was doing. I haven't seen them live but their CD is quite good.

It's always good to find passionate bands like this spread out around Korea, even if they are a little pessimistic about their lot in life; that often leads to great art.

Broke: I learned only after looking at your CD that RockHon is the nickname of Yang Hong-joon? How did that nickname start? Why is he "dirty" and why is that the band name? "RockHon"이 양홍준이라는 별명이라는 것을 CD를 보고 나서야 배웠다. 그 별명은 어떻게 시작됐지? 왜 "dirty"때 왜 밴드 이름이지?

DRH: 저(양홍준)의 젊은 시기에 겁안이 어려워지며 세상에 '화'와 사회의 '불만'만이 쌓여 있었습니니다. 그러다 다시 밴드음악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위인들이 그러했듯이 나에게 '호'를 붙이자 하여 즐거운 영혼이라는 뜻인 락혼(RockHon; 한문으로 즐거움 '락(樂)', 영혼'혼(魂)')을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밴드 이름에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티라곤"은 더러운 세상에도 (Dirty) 즐거운 영혼(Rockhon)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인생이 더럽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영혼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발음나는 대로 '더티락혼 -> 더티라곤'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더티라곤은 이름처럼 여러분들께 신나는 음악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When I (Yang Hong-joon) was young, I had family problems, and there was only anger and social dissatisfaction in the world, and I started to find the joy of life through band music again.

As all great men did,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use "Rockhon," which means "pleasant soul" in Chinese text. And I started writing it down.

Even in a dirty world (Dirty) is a pleasant soul (Rockhon), even if it feels dirty in the society or life we live. Nevertheless, it means I want to be a pleasant soul, and I have been named Dirty Rockhon.

We want to give you some exciting music, like our name.

Broke: Your album liner notes all

look like propaganda. Does Dirty Rockhon have a propaganda message? 앨범 라이너 노트는 모두 선전처럼 보여요. Dirty RockHon이 선전 메시지를 가지고 있나요?

DRH: 단순 사랑과 이별노래보다는 민중가요를 들으며 뜨거운 가슴을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의 노래가 특히나 삶이 힘든 사람들이 듣고 저와 같이 즐거움을 찾길 바랄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프로파간다는 아닙니다..ㅎ

'우리의 생각은 이렇고, 그래서 노래를 한다'는 취지이며 듣고 결정할 것은 역시 청취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I have often felt a hot heart while listening to popular songs rather than simple love and farewell songs.

I just want our songs to be heard by people who are struggling with life and find pleasure like me. Technically, it's not propaganda.

I think the intention is "our thoughts are like this, so we sing," and I think it is also the listener's responsibility to listen and decide.

Broke: The band's genre is listed on Facebook as "서민핑크" (basically common-people punk). What does that mean? What other bands would you say play 서민핑크? 밴드의 장르는 페이스북 북에 "서민핑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어떤 밴드를 연주할까요?

DRH: '음악의 장르는 지식인들의 잘난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 노래는 그 누가 들어도 핑크다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말했듯이 보통사람, 즉 '서민'들을 위한 노래를 한다라는 뜻에서 서민핑크로 저희가 명명 했습니다.

저희 노래를 들어보시면 가사는 비참하거나 반성하거나 스스로를 체찍질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애둘러 말하지 않고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으며 전체적 분위기는 즐거운 분위기를 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음악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보다 "음악이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I thought "music genre is a good thing for intellectuals," so I did not want to be limited to genre, but our songs are punk.

As I said above, we named it as common-people punk in the sense of singing for ordinary people, that is.

The lyrics of our songs express emotions we can feel in everyday life, such as misery, reflectiveness, or whipping ourselves, without hesitation, and the overall atmos-

phere wants to create a pleasant atmosphere.

We want to hear the story "music is fun" rather than "I am good at music."

Broke: Are there plans to release more music in the future? 앞으로 더 많은 음악을 발표할 계획이 있나요?

DRH: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음악을 시작했으니 한회는 아니더라도 한점이라도 찍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요절하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많은 음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곡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2019년도)이 지나기 전 정규 앨범을 내는게 현재 목표입니다..

There is a saying that "if you pull a knife, you must cut with it." I started making music, so I would like to take a single point even if it is not one stroke.

We will continue unless we are injured or die.

I am still working on songs, and I am currently aiming to release a regular album by next year (2019).

Broke: Tell me about Gwangju's music scene. Does it have a good scene, or would it be better to be in a big city like Seoul? 광주의 scene에 대해 말해봐 주세요. 광주는 좋은 scene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있는 것이 더 나은가?

DRH: 광주에서의 밴드씬은 죽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광주의 밴드들은 현재 광주에서보다 타지에서 공연하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타지 공연중에 광주에서 왔다고 말을 하나 정작 광주시민들은 저희 광주인디밴드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광주의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공연 및 행사는 거의 몸값이 싸거나(일반 대중가요 카피밴드) 아예 유명한 음악인들만이 출연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는 대중가요를 노래하는 버스킹 문화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디밴드, 지역사회, 라이브클럽, 공연 및 행사 기획사 등이 뜻을 함께 하지 못한 탓도 있으리라 보며 아무래도 흥대진이 더 좋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광주지역 로컬씬의 부흥을 꿈꾸며 오늘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band scene in Gwangju is dead.

The bands of Gwangju are now increasingly performing in Taji rather than in Gwangju, and they say they come from Gwangju during the Taji performance, but Gwangju citizens do not even know our Gwangju indie bands.

The performances and events

that are exposed to citizens in Gwangju are almost cheap or only famous musicians (cover bands) are appearing, and there is a busking culture that sings only existing popular songs. This phenomenon is due to the indie bands, the community, the live club, the performance and event planners, and I cannot help but say that the Hongdae scene is better.

Nevertheless, we are singing today, dreaming of the revival of the local scene in Gwangju.

Broke: How does Gwangju influence your music and make it unique to Gwangju? 광주는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광주에만 영향을 미치나요?

DRH: 저희 음악이 광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광주에서의 공연기회보다 타지에서의 공연기회가 더 많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즉 음악적인 다양성을 광주 시민들께 들려 드리고 싶지만 광주에서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주로컬씬의 부흥을 꿈꾸며 연 4회 매 계절을 연다는 뜻의 '사개록(四開Rock; 춘/하/추/동)'이라는 기획 공연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개록은 라이브 클럽 문화 살리기 일환으로 매회 광주지역의 다른 클럽들을 돌아가며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광주와 타지역 밴드들의 교류를 위해 광주지역 밴드와 타지역 밴드들을 초청해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광주라는 특정 지역보다는 보통사람(서민) 모두를 위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It seems that our music has little impact on Gwangju.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to perform in Taji than in Gwangju.

I would like to tell the citizens of Gwangju about the diversity of culture, that is, musical diversity, but it is not easy in Gwangju.

However, we have been carrying out a project since 2015 called Sagae Rock which means to open every season four times a year, dreaming of the resurrection of the Gwangju local scene.

As part of the Sagae Rock revival of club culture we are performing around different clubs in Gwangju each time, and inviting Gwangju bands and other local bands to exchange bands in Gwangju and other regions.

We are also singing for all ordinary people rather than a specific area called Gwangju.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of both countries are linked, and South Korean pours into the North, rebuilding one great nation.

Looks like you lose this time.

THE END



"Dammit!" you exclaim, looking at that picture on the left a few days later. "Maybe I should've been more specific..."

All you can do is go back to Deoksugung for more rallying, but now you personally know Trump sure as shit

isn't on your side, so it kind of takes the pride out of marching around with American and Israeli flags.

Before you can stop it., Trump, together with Moon and Kim, establishes ever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leper frequently changes its spots

Jon Twitch

Jared wanted me to review his CD and I think write an article for the newspaper. Little did he know he'd end up stuck in here.

The brilliantly named Leper Temple is made of three foreigners — Jared, Isaac, and Graham — playing their own unique blend of metal. Though they're often identified as doom metal, we see how that goes down here.

While making this zine I listened to their lo-fi five-song album more than I probably should have.

Broke: Who are the members of Leper Temple?

Jared: Just three of us as of now. I'm on drums, Graham on guitar, and Isaac on vocals.

Broke: An easy question I always have to ask: explain the name Leper Temple.

Jared: The name doesn't have any deep significance. A temple full of lepers, or a place where lepers go to worship. Just thought it was fitting for a sludge metal band. Depressive, subtly psychedelic, looks decent on paper, etc.

Broke: Pretend I'm an idiot and don't know what doom metal is. I walk into a concert and a band I don't know is playing; how can I determine if they are doom metal. Or I find an unmarked CD and it has your recorded album on it; what test can I conduct or what should I listen to to identify the genre?

Jared: Doom metal is slow to the point of exaggeration. Songs tend to be quite long. For instance, when Monarch played here last week they did 3 songs in 45 minutes. Like any other genre, there are 'proto' or traditional bands that are a bit



Fun fact: there really is a "leper temple" at Angkor Wat.

different from the modern stuff. In my opinion doom metal really emphasizes space, that is the space between chords, the way the amps wobble and feedback in between, the way things linger in the air before another chord comes crushing. It is often draining music and that's part of the appeal. That being said, I don't think Leper Temple is really a doom metal band. It's undoubtedly an influence and perhaps we have doom parts or even a doom song or two, but at the end of the day we stray too far from that genre to really be able to claim it.

Broke: Tell me about the recording you provided. Already out? It sounds sort of like I just opened a basement door and this horrible sound is coming from below. It's lo-fi and some components are in better focus than others. What was the intended impression?

Jared: 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The demo is and isn't intentionally lo-fi. We love a lot of lo-fi

metal, and that kind of "sketchy random tape found in the dirt" feel can be really fun and atmospheric. But ultimately we did a live mono recording because we were really broke at the time and couldn't spend any money, so that's why it sounds extra trashy.

Broke: All I know about your recordings is the very basic names (Fast, Funeral, Opener, Second, Slow) but this doesn't give me any idea of the content. Can you give me a bit more information on the content of the songs? Or is that all hidden intentionally?

Jared: Those were just temporary file names that mean nothing. As far as lyrical content goes Isaac would definitely be more equipped to answer. I think he'd agree though that it's all a lot of tongue in cheek takes on anxiety, hypochondria, and depression. We were all going through some heavy shit when we started this band, so it just seemed like it was the obvious genre to ex-

plore, and the lyrics match, or at least attempt to match the music.

Broke: Let's talk about the Korean music scene. Do you think it's going well, or are there major problems in it? What do you think is admirable about it, and what do you really want to change about it?

Jared: It's always a tough spot to be in while criticizing the Korean scene as a foreigner so I won't get so deep into it. I will say that GBN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venue and is truly awesome for extreme music. Yuying busts his ass and takes risks and we get to see killer international bands in return. As far as any negative criticism goes, I'd like to see more work put into the actual song writing. You can book shows all day, print shirts, and make flyers, but without genuine hard work being put into songwriting, there's always going to be this element of stagnation that is really problematic.

Isaac: As a no good slob who mainly listens to grind and death metal I have few things to complain about with the Korean music scene. I have a lot in common with many punks and grinders in terms of music taste, politics, etc so I'm pretty happy. I can't speak for others. Sadly some of my favorite bands are gone, while on the bright side others are either continuing or coming back. I do think that we could do with more mixed bills. Scenes in general tend to eventually get stratified by style, so it would be nice to break that up a bit. I was pretty inspired by the Monarch show (full disclosure: we played it) because it had a good turn out and audience response for a style that has never been very popular here. So that was heartwarming to see.

48 ROUBLE	30 ION	11 WIND-	BATS	1 APOP	62 VIBRA	46 ERR	32 ALAMO	35 ECO	36 MOO	37 TILED	MON	20 POKE-	18 ATOLL	CROSSWORD
49 HARDO	31 NOKIA	TALKER	12 OMAR	3 EPIC	65 ASH	ROS	48 RANCHE-	47 PRAHA	48 RANCHE-	46 ERR	47 PRAHA	64 REGIA	65 ASH	66 ESTER
50 ENDERS	33 METRO	12 OMAR	4 REVERB	5 TREMOR	67 DROLL	53 IAN	54 COG	56 EAU	69 REEDS	70 OSSIE	8 BLOODS	7 BIT	26 ULI	27 BEBOP
52 RAISE	34 ODORS	13 OPTS	6 ASAN	21 OBAMA	68 STL	55 UST	39 WHAT-	EVER	40 EON	28 ACTOR	9 OLLIE	10 TALK-	29 DOL-	44 PH
54 CHAS	39 WHAT-	21 OBAMA	7 BIT	26 ULI	27 BEBOP	58 EGOS	59 LILI	60 VALP	41 RICIN	28 ACTOR	9 OLLIE	10 TALK-	29 DOL-	44 PH
55 UST	39 WHAT-	21 OBAMA	7 BIT	26 ULI	27 BEBOP	58 EGOS	59 LILI	60 VALP	41 RICIN	28 ACTOR	9 OLLIE	10 TALK-	29 DOL-	44 PH
57 SARS	EVER	26 ULI	27 BEBOP	28 ACTOR	29 DOL-	44 PH	45 IOI	46 ERR	47 PRAHA	48 RANCHE-	49 HARDO	50 ENDERS	51 NITRO	52 RAISE
58 EGOS	40 EON	28 ACTOR	29 DOL-	44 PH	45 IOI	46 ERR	47 PRAHA	48 RANCHE-	49 HARDO	50 ENDERS	51 NITRO	52 RAISE	53 IAN	54 CHAS
59 LILI	41 RICIN	28 ACTOR	29 DOL-	44 PH	45 IOI	46 ERR	47 PRAHA	48 RANCHE-	49 HARDO	50 ENDERS	51 NITRO	52 RAISE	53 IAN	54 CHAS
60 VALP	44 PH	29 DOL-	44 PH	45 IOI	46 ERR	47 PRAHA	48 RANCHE-	49 HARDO	50 ENDERS	51 NITRO	52 RAISE	53 IAN	54 CHAS	55 UST



First you'll stop this corrupt government, and once it's out of the way you'll free your princess. But how? Do you respect due

process, or is it going to take violence? There is still a conservative political party, the Liberty Princess Party that stands for all you believe

in — military might, kowtowing to America, feudal capitalism catering to chaebol owner families, and Christianity. But blowing stuff up

works too.

I'll do it politically. GOTO page 19
Violence. GOTO page 20

Struggling through another Nevin interview

Jon Twitch

Before Nevin returned for another tour with his Beijing hardcore band Struggle Session here in May, I interviewed him for an article for work. We took this big long article and cut it down to something like 500 words. Anyway, here's the rest of everything he said.

For those who don't know, Nevin lived in Korea early last decade, and was an active part of the punk scene while he was here. He's since been in Beijing where he's been an important part of their own scene, which has grown past ours.

Broke: By the way, this is for work, so try to avoid profanity when possible.

Nevin: Oh, fuck!

Broke: I should have mentioned, "shithole" is now acceptable and probably most variations on "shit." THANKS OBAMA!

Nevin: Oh, nice. We have to get past the conservative on language. I don't think racial slurs are acceptable but we should be able to talk about sex and bodily functions in everyday venacular.

Broke: Can you namedrop the specifics about what you've been doing there?

Nevin: From 2006-2012 I was the booking manager for D-22 which involved organizing and managing live events six nights a week. I have done just about everything for the label Maybe Mars from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o organizing and managing tours and executive producing recordings. I currently focus on international (tours, distribution, and promotion) while also acting as the general COO for the label. Genjing is my own label and I do everything for it. Far Out Distant Sounds is a distribution company based in LA that provides mailorder from its website while also stocking a handful of record stores, coordinating digital distribution, and handling US promotion for some of the acts. I also organize and manage domestic tours for one or two foreign acts a year and act as a consultant on the Chinese music industry.

Broke: So did China lift its THAAD retaliation, or are you coming here in defiance of the government and showing your support for the missile defence shield?

Nevin: I'm not sure if music is part of China's THAAD retaliation but there are actually cities in China, including Shanghai and Wuhan, where Korean bands are not allowed to play. This is probably more about China protecting itself against the cultural pollution of K-Pop. I'm not in favor of missiles in the hands of any government but I can see the need to protect an innocent public from the vices of K-



Struggle Session get naked in GBN on May 5, 2018. Not pictured: Nevin.

Pop. My bassist, on the other hand, is a massive fan of Red Velvet.

Broke: How the fuck are Korean bands not allowed to perform in Shanghai and Wuhan?

Nevin: I'm not sure when the Korean ban came into play but over the past couple years certain local ministries of culture have began enforcing the rule that all performances by foreign artist must be permitted. This is a painful process of submitting passports, translated lyrics, and videos of the band playing the exact set list of their planned performance. Oh, and a fee, of course. It is possible for most artists though and I have done it regularly for touring acts. This is spotily enforced city by city and, for now, doesn't apply to non-ticketed events. Recently when I was trying to organize a tour for the Geeks I discovered that it was impossible to permit shows by Korean bands in Shanghai or Wuhan (Guangzhou is still ok), and my contacts in the larger industry confirmed they had a similar experience with K-Pop artists. Since the Ministry of Culture in Beijing makes it impossible to permit shows here technically all shows with foreign performers are illegal. This has yet to be a problem but the government can shut everything down whenever it wants (which it does on occasions like last weekend).

Broke: Can you list any Chinese government measures to crack down on the underground scene?

Nevin: Club closures are usually based around the performances of foreign acts or drugs. I would list things like the "hip-hop ban" as more targeted towards local performers. This is a truly fascinating story but the jist of it (unfortunately, without all the juicy bits

which would take pages to reveal) is that the rising stars of China's rap scene had too many fans and developed cult followings similar to Mando Pop stars. The government tried to leverage this in their favor by creating political, pro-(Communist)party lyrics, but the problem occurred when the government realizes that the rappers weren't as predictable as the Pop stars. When fans dug up old lyrics about about smoking dope and fucking hoes the government decided to pull the plug. This so-called "ban" banished rap from TV and radio and will possibly effect internet platforms and online streaming services. While it has cut down the stars on the top end it has done nothing to hinder the underground scene growing in clubs across the country. 200 kids jumping around a venue isn't something for the government to worry about, they've got much bigger issues to worry about.

Broke: I had to look up what the band name meant. Why did you guys choose it, and does it cause any consequences in China to use such a political band name?

Nevin: We chose it because of its connection to China and because we felt it was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our live show. It doesn't cause us any problems as most Chinese don't know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at term and we never use the Chinese. My old band however went by the Chinese name Fanzui Xiangfa (Criminalized Thought) and sang straight forward political lyrics in Chinese. We would have had a hard time performing in China under the current (and possibly permanent) leader.

Broke: How would you characterize the band's sound? Judging

breasts. "Ready to meet President Moon?"

President Moon? But you brought him here to help your princess!

by the title of the track posted on Unite Asia, it's beatdown hardcore. Feel free to correct me.

Nevin: I'm laughing because the music and lyrics for that track were intentionally poking fun at beatdown hardcore. Generally, our style is hardcore with blast beats, often associated with the 90s west coast USA "powerviolence" scene, however it's really just an evolution of hardcore-punk. Because of the age range of the members, we draw influences from the hardcore and metal scenes of the 80s, 90s, and 00s and often try to reference diverse styles of "extreme music" in our songs. While all the members listen to "hardcore", I feel it's the diversity of our influences and backgrounds within that genre that makes our music interesting.

Broke: The band is all foreigners, right? How did it come out that way, and does "expat band" carry different connotations in Beijing than it does in Seoul?

Nevin: We are all expats who have played in hardcore bands in our own and various other countries. We met first online, the virtual space of the international hardcore scene, and then in venues in Beijing. "Expat band" probably has very similar connotations in Seoul as it does in Beijing but as individuals we are members of the local music scene first and then the expat scene tangentially. I see it as a question of community where we are expats inside of China's underground music scene rather than musicians inside China's expat community. It may seem like a small distinction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expat band" and expats in a band.

Broke: How is the Chinese underground music scene doing these day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 recall about 10 years ago it seemed to surpass Korea's and everyone was excited about it. More recently, there seem to have been harsh actions taken against it such as venue closures.

Nevin: The Chinese underground music scene is bigger and better than ever. It faces it's own unique challenges but is truly an unstoppable cultural and economic force. In some ways the government keeping the scene "underground" has allowed it to incubate and become stronger both musically and in terms of active participation. Often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underground culture in other countries kills the very roots of that once creative and vital scene. Regulation in China may have inadvertently protected its underground culture against the cool hunters of predatory capitalism but as the culture grows those same capitalist forces will push through the regulation as "to get rich is glorious",

I'll play along and try to assassinate Moon. GOTO page 26

No, I'm done with this idiot American. GOTO page 23

even in communist China.

Broke: Can you talk a bit about your history living in Asia

Nevin: I originally came to China as a university student at the end of the 90s studying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in Dalian. Upon graduation I took a Fulbright scholarship to South Korea where I taught English and studied the Kwangju Uprising. I continued my studies of the Korean languag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n eventually returned to China to drop out, play in a punk band, and waste my life getting drunk with local musicians. Despite my slacker intentions those drunken nights became productive days as I managed the booking at one of Beijing's most influential venues while running two record labels and a US based distribution company and still managing to tour and record with several bands.

Broke: How well have you stayed in touch with the friends you've made from your time in Korea?

Nevin: Certain friendships will never diminish no matter the distance or time and I'm fortunate enough to have several friends like that in Korea. Other friendships are held together by the underground music scene and even though we don't actively keep in touch we still regularly bump into each other through shows in Korea or Japan. The international hardcore-punk community is very supportive and active participants find they have friends all around the world.

Broke: How many bands have you been in? Off the top of my head, Pulgasari, Fanzui Xiangfa, that band with the Chinese name that covered Johnny Cash, and this one.

Nevin: I think you hit the important ones. There have been a couple others along the way but maybe it's better if they are lost to history. My current band Struggle Session has been quite active over the past two years averaging a show every five days. We toured Spain and Morocco last summer and are preparing for a 34 date, 7 country tour of South America this June and July.

Broke: How did this split release with Arryam come about?

Nevin: We've played multiple shows with two of (Arryam's drummer) JP's other bands, Octopouple and Milu, and members of Struggle Session have also had several chances to meet and hangout with the other Arryam guys in both Seoul and Tokyo. These upcoming shows for our split release will be our first time actually playing together but the collaboration happened naturally through friendship and mutual respect. We're hoping this release can be a foundation for creating deeper ties between the Chinese and Korean underground scenes.

You manage to secure blueprints to the prison and find an ingenious way to break out. You research the other inmates and find ones who can help put your plan in motion. All of this, you have tattooed on your wrinkly old body. Now all that's left is to get thrown in

Flying back



Amanda and Aaron perform with Apterina in GBN on July 28, 2018.

Jon Twitch

Shortly after Nevin's return, Amanda and Aaron also came back. She lived in Korea in the early 2000s, and Aaron came to visit and ended up living here for several years before marrying a drummer moving back to Australia. I interviewed Aaron for work in anticipation of the July 28 visit, but here's the whole interview.

Broke: What's something you miss about Korea? What's something you really don't miss?

Aaron: i think what i miss most, aside from friends, is living in a big city surrounded by mountains... australia is kinda... sparse. I also miss the public transport system and cheap cigarettes. I definitely don't miss the brutal winters or cycling through Seoul traffic.

Broke: How would you contrast the Korean scene you were part of with the Australian one you're in now?

Aaron: they are very similar actually... like seoul, the adelaide scene is very small, with a few key people in multiple bands / involved in multiple ways. we are lucky to have some really great people here that do a lot of good work, like the animal house collective, they have helped build a small but active community.

Broke: Can you tell me a bit about your history with Korea?

Aaron: i had visited seoul previously. You grab a bottle of soju and get wasted, then go on a rampage through the streets. You smash up someone's car, but the owner comes over and just helps you onto the curb. You get on the subway and attack a young woman, and everyone tries to calm you down.

ously to hang with Mandy and was intrigued by the culture and the city... ended up living there for the better part of 10 years since me and Dok got married, so Korea will always be a part of our lives.

Dok and I plan to spend more time there in the future, but we both suck at long term plans.

Broke: How well have you stayed in touch with the friends you've made from your time in Korea?

Aaron: some well, others not. Im actually really terrible at staying in touch with people, i kinda wish i was better at that...

Broke: I forget, are you two siblings or cousins? What's it like being in a band together?

Aaron: we are siblings and there hasn't been much of a difference that ive noticed yet... being in a band with anyone is kinda like family... there's a persistent bond even though you might not always get along or agree on things... i dunno...

Broke: Your bandcamp page says the band is "critiquing the mess of western civilization." But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at worldview toward the eastern civilization you'll be touring?

Aaron: the implications on eastern civilizations of our songs critiquing western civilization...? haha i imagine our impact on any civilization is negligible to zero. the idea of using any platform you have to connect with people to highlight things that make you angry or to

At the next stop, they force her off the train. You go aboveground and see a foreigner walking down the street, so you strike him, right in full view of a police officer.

"I'm sorry, ma'am, was this foreigner bothering you?" the cop says, then

start a conversation / thought process on things that you see as unjust is and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every band ive ever been in and is certainly a big part of Apterina. I dunno, I'm sure we'll find some eastern mess to critique during the tour, just for some balance.

Broke: And of course, what does the name Apterina mean?

Aaron: ...from relatively narrow tracts (pterylae) in the skin. From the pterylae the feathers fan out and cover the remainder of the bird's body. In passerines, the feathers are arranged in eight distinguishable tracts, with apteria (relatively bare skin) between them.

Mandy likes birds.

Broke: How did this tour come about?

Aaron: I was going to be visiting anyway, Dok and I try and get over at least every couple of years. and i floated the idea to the band... i was kinda surprised they were into it actually haha. Hong Gu (cerkkyu / chadburger) has been amazing with helping to organise the shows and we really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him.

Broke: How many bands have you been in? Looking for a list.

Aaron: transit, chadburger, dok-kaebi assault, terania, apteria... and a few others that aren't really worth mentioning... I've been playing in bands to various degrees of "success" for the past 20 years

hauls the foreigner off to jail.

Try as you might, you can't get arrested. What is wrong with this country that they don't even have any jail cells for the elderly?

THE END

The killers of K-pop

Jon Twitch

For the last couple years, Ian Henderson and Michael O'Dwyer have been locked into production of their feature-length documentary about the Korean metal scene. Post-production finally finished earlier this year, although just like "Ash" which was spotlighted in the last *Broke*, it still hasn't been released officially yet. Before seeing it, I did this interview with both guys about making this documentary.

If you want to see it, chances are the best way is to get your hands around the thick neck of one of these two guys and force them to show you. I don't fancy your chances.

Broke: I'm curious about the choosing of the name "K-Pop Killers."

Ian: No. It is referenced of course, but not much more than other of the aspects of Korean culture which are juxtaposed against the extreme metal scene.

Both: But it would be disingenuous to say I don't hope the inclusion of the word K-Pop won't help get more attention to the project. But the name itself is supposed to represent diametrically opposed sentiments. I guess in a way you could say the whole movie pits images and ideas against each other. I think my poster wraps it up nicely. I do want to add thought, that although the main narrative thread is metal, I made sure to make it big enough in scope to hold the interest of people who really couldn't give a rat's ass about metal. It's more about Korea, THROUGH the lens of metal.

Strictly homicidal towards K-Pop. I don't believe any of the "grass-roots" artistic movements in Korea have many commonalities with K-Pop, which I consider to largely be just a commercial product.

MOD: K-Pop, or at least the shadow of it, is everpresent in the background of the documentary. In Korean modern life K-Pop music and the Idol group members are everywhere. A lot of the subjects in the documentary consciously made a decision to pursue music and style that is on the polar opposite of K-Pop style and what they feel it represents. Also, we really wanted the title to be instantly recognizable as Korean. Ideally "K-Pop Killers" would be someone who is interested in Korean music would find it and come away finding out about this whole underground music scene/culture that is virtu-



Ian Henderson (Norse Rage) and Michael O'Dwyer

ally unknown when compared to K-Pop.

Broke: Can you define the Korean extreme metal underground?

Ian: I won't go into too much detail on this, as that would negate the point of most of the movie hahaha. But I will say yes, we do go into the entire history of metal here, and feature some of the biggest classic bands, which you'll recognize in the above list. But the main musical focus is the evolution of "extreme" metal in Korea. So like you already guessed there's some overlap, particularly with crust/black metal/grindcore.

MOD: Yes!!! There's a lot of overlap between the scenes!! But they're still very distinctive! Today the majority of the bands play at GBN LiveHouse in Mulla-Dong but there are a lot of other clubs that play metal shows scattered around Seoul. Including Rock 'n Roll Wook's in Gangnam area, Prism Hall and other remaining smaller music venues in Hongdae. GBN really is the home of metal as well as the home of hardcore and punk in Seoul! Believe it or not, the scene might be very small but there's a show every weekend and usually a fairly exciting show with a lot of talented bands playing at least once a month. I think the best way to define the Korean metal scene is "There's something for everyone" who is interested in metal. Classic heavy metal, thrash, grindcore, metalcore (a lot of metal-core. I'd say half of all active Korean metal bands are metal core.), death metal, black metal, doom metal, etc. It's all here. And every active band plays several times a year. There's a bit of disconnect or generation gap between the Korean metal bands that started in the 80s and are still active and the metal bands that started in the past 10 years. But I've been

to concerts where bands across "generations" shared stages so it's not unheard of. Honestly, the scene is so small that shows try to mix up the genres to get people to come. A lot of big shows will mix metal-core bands with death metal bands. (There's even a couple of controversial metal band genres, like National Socialist Black Metal. Seriously, "What does it exclude?" GBN and other venues have banned a Korean band that has racist and fascist songs. But other than that the scene is fairly inclusive and prone to mixing. DON'T PRINT THE WORDS IN PARENTHESIS ...unless you really want to.)

Broke: How do participants of the Korean metal scene define themselves and their movement and place it all contextually?

Ian: The older generation: that they're a dying breed. The up and coming: we're way past peak metal (rock in general) and that's a bummer, but there's a rediscovered punter pride alongside the punks and being able to create free of any benchmarks other than artistic.

MOD: I can't speak for everyone but a consistent tone expressed in conversation and interviews is a driving need to express themselves. Dressing in "metal fashion style" or having long hair if you're a man, having visible tattoos, or just being in a rock band are all huge counter-cultural acts against regular Korean society. In the 80's there were still "hair police" that would fine men with long hair. Korean society is changing quickly but there's still a huge collective/societal pressure to conform so even just saying "I don't like K-Pop and I like rock and roll." or "I like extreme metal made by Korean musicians that play in tiny clubs in Mulla" puts one in the societal fringes. It'll be like saying "I'm a vegetarian" in Korea. Not unheard

closing in on you. "Yeah yeah, very helpful," you retort. "Do you have anything that can help me?"

"Help you?" she asks. "I'm just a shaman."

"Bullshit," you retort. "I know what shamanism is. All you are is the

of but just regarded as incomprehensible. So participating in the metal scene with all that pressure the fans and musicians are acting on a deep urge to express themselves or rebel.

Broke: What are the main structural strengths of Korean metal? What are its main weaknesses?

Ian: I think I delved into this a bit in a previous interview, but some of the traits that are common to the scene a lot of places. Strengths would be dedication to the craft and really pushing themselves to grow as musicians in technical proficiency and production quality. Weaknesses would be too much in-fighting and competition among those who should be allies, general elitism. In my opinion you could reverse the opposite of those to b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punk scene. Hahaha. Metal and punk have always been strange bed fellows. However, I think the aforementioned weak points of each genre are being lessened due to the fact that the scenes have had to come together out of necessity these days. So they're complimentary in a way.

MOD: Thank you so much for this question. The main strength, especially for the live scene, is the sheer level of skill and speed with most bands. Very few bands have members that phone it in or are out of sync. That's the biggest impression for a stranger is that every band that's been around for a few years have songs that have intricately complex melodies that they play very fast and rarely, if ever, make errors. I've been back in Texas for a couple of months now and I'm appalled now when I see a touring band drown out their shows in distortion or play sloppily. As you know metal has a lot of sub-genres and they all exist in active Korean bands. I would say the top 3 most popular sub-genres would be death-metal, metal-core, and grind-core. Korean grindcore especially is getting some recognition in Japan and outside Asia. Magazines and bloggers have begun calling Korea the "new home of grindcore". Grindcore/Brutal Death Metal, especially, only works when the band is able to play extremely intricate melodies extremely fast. Fecundation, Huqueymsaw, and Seed are 3 of my favorite Korean bands and they all play incredibly fast grindcore/death metal yet still have layered melodic soloing, tempo changes, and clear song arcs. It brings in a new dimension that rarely exists in this genre and I'm

daughter of a cult leader."

"Well..." she says, "I have these mushrooms."

I'll rescue her and try the mushrooms, I guess. GOTO page 17.

I'll keep looking. GOTO page 18

You read somewhere else about the usefulness of excavators in prison attacks, so you hijack one from a nearby construction site. It makes quick work of the prison wall. You drive in and attack the prison.

16 Digging through concrete

in awe every time I listen to them. The weakness. Some of these bands go to extremes in their genres in speed and layered melodies. A lot of the songs are so dense that it can be overwhelming for the casual listener. They're not going for mass appeal and don't have ballads or anything resembling that would happen at a K-Pop concert. Without a navigator it can be difficult to know where to start. But at Korean shows there's always a mix of genres. So the grindcore band that is technically dense will finish and there will be a doom/goth metal band like Dark Mirror Ov Tragedy or a classic thrash band playing fun metal riffs like Method or Mahatma. You could argue that every K-Pop band has a similar sound. It's the opposite with Korean metal. You really can't pigeonhole this scene. For me that's why it's so fascinating.

Broke: Also, what of Hongdae? Does it have a presence still in your film, or is it totally forgotten by the underground scene now? And is Mullae 100% the place now?

Ian: Hongdae is mentioned in connection with metal strictly in the past tense, and covered in the present in the form of gentrification. Mullae might not be 100%, but damn close to that.

MOD: Hongdae!!! Hongdae does have a presence in "K-Pop Killers". Specifically the gentrification of the neighborhood and the move of the metal music scene to Mullae!! We love Mullae and love that the metal bars/clubs are all right between metal-working shops. There are metal bands literally playing next to metal-working shops and small factories. It's really quite poetic! At one point I literally walked around the old Hongdae park and where Club Spot used to be with camera and just recorded the new high end stores and open markets. We did film one of the bigger concerts at a club in Hongdae and the police came and almost shut it down as there was a noise complaint. The show continued at a lower volume and with club staff trying to everything to stop sound escaping and warning people to be quiet if they went outside. Hongdae is a different place than it was 5 years ago. Mullae and GBN is 100% the place now.

Broke: What was the hardest part of making this documentary? What was the best part?

Ian: I suppose the hardest part has been the technical learning curve, both production and editing. Also the self discipline to wake up at 6am on the weekends and start editing, etc. Learning to be disciplined enough to bring a project of this scale to fruition. The best part

could also be post learning curve, I'm super excited to go into my next project (I haven't revealed what it is yet, but will be in Korea) with the arsenal of knowledge and skills I've gained. To be honest though, the thing ain't done yet! So I wanna say this final stage of rendering and subtitle is proving to be pretty hairy.

...BUT...actually....the best part was being able to leave this as a testimonial. I've been here almost 10 years, embedded in the metal scene the entire time. So much of what I cover in the past tense I was there for and witnessed. It's kind of my love letter / swan song to the scene that's been like my family for the past decade.

MOD: I've worked on film sets before and I've been a photographer for years but this was the first time I had approached making an actual film. So learning new skill sets was really intimidating and the resulting anxiety of "Could I have shot that scene better?" The best part: The film itself! K-Pop Killers. It's a great product! As an artist you hope to create something that conveys a message and I think we've succeeded. Hopefully people will see film and see the stories of this vibrant art scene. These rebels and their everyday rebellion with a society that has an often crushing pressure to conform.

Broke: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on this, and how much of your life have you put into it? Because it seems sort of like it's become your Iliad.

Ian: This certainly has been the biggest single endeavor of my life. We started in November 2016 and planned and shot for just over a year. I've been organizing and editing for the past 6 months. I think I will have surpassed 1,000 hours myself by the time I'm done.

MOD: (laughs) Oh maw gawd. Yeah. It feels that way. Close to 3 years. Including post production and preproduction. It's really my love letter to Korea. Especially the underground music scene. Endless planning, logistics, e-mails, arranging meetups, learning new skills, improvising when equipment failed, improvising with terrible sound issues, etc. It was a rare week that I didn't spend at least a day actively working on some aspect of this documentary. I lived outside of Seoul for the whole production so more or less every weekend I would make the trip to Seoul to spend at least one day of the weekend working on the film. Making this film really was like sprinting uphill while having a refrigerator strapped to your back! But it's all worth it. I'm super happy with the result and hope people enjoy it.

Suddenly everything around you shrinks. A tiny prison guard, barely half your height, rushes you. But you stomp on his head, flattening him.

Choi follows after you as you flatten another guard, who somehow was wearing a turtle shell. You

Lecture: Korea's Extreme Metal Underground

Lecturer: Ian Henderson

Date: Tuesday, October 30, 2018 - 7:30pm to 9:00pm

Venue: 2F, Residents' Lounge, Somerset Palace

Admission: W10,000 (non-members), W5,000 (students with student ID), free for RASKB members

While K-pop and all its plastic packaging remains the growing symbol of Korea's arts culture in the eyes of the world, there do in fact exist grassroots subcultures living and creating in the underbelly of the metropolis. One of these is the community of extreme heavy metal musicians, who have been portrayed recently in the full-length documentary "K-Pop Killers." The film is the product of a collaboration between US expats Ian Henderson and Michael O'Dwyer, both of whom have been immersed in the local metal scene for years and spent over a year following and interviewing many of the key players for their documentary.

Director Ian Henderson will discuss the film and how in getting to know the personalities involved in the scene, a few uniquely Korean challenges have emerged: strict social hierarchy, a tumultuous political history, and gentrification in a rapidly developing nation all conspire to thwart any chance of professional success. The saga of

heavy metal in Korea is a strange one: starting as an illegal import under military dictatorship, to the rock explosion of the 1980s and 1990s, through its downfall in the wake of the K-pop juggernaut, the film follows the quixotic quest of these musical miscreants. Despite all the crushing demands of Korean society, these cultural underdogs continue to chase their dreams of heavy metal stardom...

Ian Henderson has been living and teaching in Seoul for nearly a decade. Besides being involved in the extreme metal and punk underground, he has also written for Groove Magazine and 10 Magazine, and is a mainstay at comedy and trivia events. For the last few years he has been focused mostly on documentary production, following a strict learning curve as he basically learned how to produce a documentary from scratch. He is currently in pre-production on his next film and will be leaving Korea at the beginning of 2019, destination as yet unknown.

Walking tour: Mullae, City of Metal

Date: Saturday, Nov. 10, 2018 - 2:00pm to 6:00pm

Destination: Mullae-dong, southern Seoul

Cost: W20,000 for members; W25,000 for non-members

Tour Leaders: Ian Henderson and Jon Dunbar

Korea's arts and music scenes have faced challenges in recent years, even as they find unprecedented success. Once centered around the Hongik University area, many artists and musicians have become gentrification refugees, fleeing to Mullae-dong, a fading industrial neighbourhood south of the river.

Here, the creativity as well as the noisiness of industry and art go together. The area has led to the

rise of art studios and live music venues, while also remaining one of Seoul's roughest areas.

Ian Henderson, director of the heavy metal documentary "K-Pop Killers," and Jon Dunbar, not author of the punk zine "Broke in Korea," will lead participants through the alleys of Mullae-dong, looking at its past history as an industrial whistle-stop region, its current status as a refuge for artists and musicians and the structural problems it faces, as well as its projected future.

raskb.com

You grab the mushrooms out of her hands and eat them.

"You weren't supposed to eat them!" she exclaims.

"Why not?" you ask. "What are they?"

"Magic mushrooms," she replies, "mixed with meth and angel dust."

throw it down the hall and it strikes more guards, sending them to hell.

The guards are closing in, so you grab Choi and jump down a big green pipe. You'd think it'd be full of sewage, but it's all gold coins down here, just floating around in the air! That'll be perfect for financing a

revolution.

What's it gonna be?

I'll use the coins to fund a revolution. GOTO page 24

Fuck that, what we need is more of these mushrooms! GOTO page 21

WDI's Halloween is Still Alive

Jon Twitch

I did a quick interview with Jeff at World Domination, Inc (WDI) about the Still Alive Halloween concert series, which turns 10 this year. And he responded with some long answers full of shade at me.

Broke: Why is it called "Still X Alive"? Is it going straight-edge this year?

WDI: Hahaha. Definitely not. The event is "Still Alive X" because this is the 10th year of the show, and as you hopefully know, X is the Roman numeral for 10. I joked about how people who haven't heard of the show from years before would think it's a straightedge show when they saw our teaser announcement. That had more of an old school hardcore feel to it. I think it'll be less likely with the actual poster due to the X-Men theme.

Broke: Let's go back 10 years in time. What prompted you to start the first Still Alive in 2008?

WDI: Well, first of all, Tel would be very upset if I didn't point out that this is "year number 10" of the show which means that it started nine years ago, not ten, in 2009. That said, the concept for the show was born in 2008. That was the first year I went to Hongdae over Halloween weekend. I've always loved Halloween, and I was so disappointed that year. All the clubs had Halloween-themed flyers, but when I got to the shows, they were just normal shows. Nothing to do with Halloween at all. I talked with Sun, the manager at Club Spot (now owner of Newsboy Burger Pub), about how lame it was that nothing was happening. He said people in Korea didn't

WORLD DOMINATION, INC. PRESENTS

STILL X ALIVE

SEOUL'S BEST HALLOWEEN PUNK PARTY at DGBD, HONGDAE

(FIRST SHOW)

A'Z BUS 57 ANDERSEN
RUDY GUNS ...WHATEVER THAT MEANS
DRINKING BOYS + GIRLS CHOIR

2018. 10. 27 SAT 10pm

ONLY 5000won with costume 할로윈 코스튬 장착시
**10,000won without costume 입장료 5000원!

10주년을 기념하며 코스튬 콘테스트와 경품 행사를 마련함!
Halloween Costume Contest with Prizes!

Moderment A modern movement WDI WORLD DOMINATION, INC. 2008 DGBD: #23 Jandari-ro Mapo-gu, Seoul www.tiny.cc/StillAlive10

care about Halloween, so I said we needed to change that. Trash and I were engaged at that point and were just starting to talk about booking shows together. I mean, ...Whatever That Means wasn't even a band yet. And we decided

we'd start a real Halloween show the next year with Halloween decorations and a discount for people in costumes.

Broke: Why is it called "Still Alive"? With each passing year, that seems more morbid.

WDI: In 2009, Skunk Hell had only recently closed, and as always, everyone was talking about how the punk scene was dying, so we decided to call it "Still Alive" to show the scene was still around and kicking. We also liked that it fit the Halloween them and went well with the Zombie Hong9 artwork we were already working on.

Broke: Let's talk about the posters, which all seem to incorporate Hong Gu as various pop culture characters. How did it start, and what aspect of him is perfect for it? Also, now that he's long since left your band, is it not a little cruel?

WDI: For "Still Alive," he's been a zombie, Frankenstein's monster, the Incredible Hulk, Freddy Krueger, The Joker, a scary clown, Iron Man, Hannibal from Silence of the Lambs, and this year, he's Wolverine. As for why it started, it was really just to taunt him. When we started ...Whatever That Means, Hong Gu was still kind of shy. He HATED when we used his face for posters, so we did it all the time because we thought his reaction was funny. Before he quit the band, we used him for other shows too. He was Darth Sidious, a storm trooper, King Sejong... Trash would make the posters. We'd print a thousand stickers without telling him and then just leave a small stack of them on his snare drum before he'd show up for practice. He'd walk in, see them, and the initial reaction was always hilarious. In 2014, Hong Gu quit WTM, and Mizno replaced him. Trash actually drew Mizno as



Members of Full Garage dress as bees and a flower for Halloween 2013 .

"Where do they keep the president?" you shout at her. "The real president!"

"One floor up," she replies.

You use the excavator shovel to dig through the structure,

burying Choi. Finally you find the presidential suite, and scoop up its occupant in your shovel. Then you make your retreat.

The prison guards by now have firearms, and are shooting at you.

You barely flee with your life, as well as your rescued prisoner.

As soon as the coast is clear, you jump out of the excavator cab to come to your princess's aid. But when you go over to the shovel,

curled up to protect its occupant, all you find is a snivelling old man.

"Dammit!" you exclaim. "I went to rescue Park and all I got was 2mb!"

THE END

Beetlejuice for the "Still Alive 6" poster that year, but something about it just wasn't as good. I'm not sure why. So the next year, we switched back to Hong Gu. Running gags are always funnier, and honestly, even though Hong Gu doesn't get embarrassed by it anymore, I think he might find it a bit more annoying now that he's not even in the band...which keeps it funny for us.

Broke: Tell me about the lineup this year. Some very young bands with some very young people. Andersen, whoever they are. What will be the highlight?

WDI: THE highlight? That's a hard call. As always, we've made sure there's a good amount of punk rock. So you've got Whatever That Means, who obviously plays every year. Then there's Drinking Boys & Girls Choir. They're a skatepunk band from Daegu who we have really fallen in love with over the last year. Great people making great music in a city that doesn't make it easy to stay motivated as a band. We've also got a brand-new band, Andersen, playing their first ever show. That band was put together by Choi Gunn, the drummer from Startline and GumX, so it's more of that great

Japanese skatepunk sound he loves to plays. We've got Seoul ska-punk heroes Rudy Guns. This will be everyone's last chance to try to steal Nagi away from Gicheol before their wedding. Hahaha. And then we tried to round out the night with some slightly more garage/stoner/indie-type stuff with 57 and A'Z Bus. So yeah, honestly, I'm looking forward to everyone. I don't know who the highlight is gonna be.

One random thought about the lineup that I just noticed... Recently someone asked me why women were so under-represented in the Korean underground scene, and I told them they were just wrong. I mean, if you look at the lineup for this show, five of six bands have women in them, and half the bands have women who sing lead vocals. That wasn't done of purpose. In fact, it'd be really hard to book a decent show in this city without bands with female members, and I think that's one of the coolest things about playing music here.

Broke: Let's talk about venues. Where have you run Still Alive? Why is DGBD the venue of choice now?

WDI: The show was at Club Spot

from 2009-2014. Still Alive 6 in 2014 was actually the last ever show at Club Spot. That night was epic. Since then, we've been at DGBD. I had always wanted to book shows at DGBD because it's such a cool venue. They've got a great stage tall enough to stage dive off of. They've got that balcony around the top. It's just got a cool feel to it. The problem for us has always been that you need at least 60 to 80 people for the venue to not feel completely empty. That's not a normal amount of people for the average...Whatever That Means or WDI show, so we never booked there. Still Alive always pulls in a good crowd though, so it works. DGBD also gives us a really great deal on the club for the night, which is why we're able to let people in for only 5,000 won if they wear a costume.

Broke: What's the best costume you ever saw at one of the Still Alive shows? Also, what are some of the worst you've seen, either most half-assed or most offensive?

WDI: Our first year at DGBD a couple wore these super elaborate zombie bride and groom costumes that were absolutely amazing. Full Garage always

cracks me up with their costumes. One year, Keunyoung (bass) and Hyosub (guitar) dressed in these really embarrassing bumble bee costumes, and Jaehyuk (drums) wore a bow on his head with a flower on it. Another year, they all dressed as ladybugs.

As far as lame costumes, we mention them on the event page now so that people don't show up in them arguing for a discount. One guy wrote the word "book" on his forehead and said, "I'm Facebook." I told him that was lame and stolen from The Office. Another guy wore a "Hello, my name is _____" nametag and said, it was a costume because that wasn't really his name. Also stolen from The Office so also lame.

The funny thing is, when people do lame stuff like that, and we don't give them the 5,000 won discount, they get really, really mad sometimes. Anyway, I think the lamest complaint ever came from Ryan lhm when he wore his orange Misfits t-shirt and said, "I'm a Misfits jack-o-lantern." I pointed out that I'd seen him wear that shirt a bunch of times before to which he responded, "Yeah, I love wearing costumes." That was a pretty good comeback, and I didn't feel like arguing with him, so he got the discount.

Youth "unpretentious decadent pleasure" new trend Korean punk rising

Perms, unisex uniform, nightlife

"No tomorrow" — pleasure only

First meeting, drinking, and dancing, then on to crime

Dong-A Ilbo 1984.10.10
(See back cover for original)

Recently, there are more and more "punk" people who have the same hairstyles.

The punks recognize each other in unisex uniforms, such as "punk perm" hair imbalanced on the left and right, with bangs down, and short pants.

They are a big social problem because they are heading for a derailment of unconsciousness, claiming the purpose of life is pleasure only and they can do anything in pursuit of it.

In front of the DACO Club in Jung-gu, Seoul, every evening at around 5 pm or 6 pm, dozens of young people like this are shouting.

"Yoon," 19, says if punks like each other, they say "Let's play together," and if anyone talks to them, they will get along straight away.

"At first, my life in punk was strange, but I have fallen in without knowing while play-

ing around with men," she said. "I don't want to talk to people who aren't punks anymore."

In the late 1960s, punk was spreading in the US, but is spreading to Europe and Japan where people are enjoying a decadent life of dancing, drugs, and sex.

The Korean punks originated in late 1981 at a youth entertainment center called Jongno University in Core Building at Jongno 2ga, having the same hair and attire. (Translator's note: this location appears to refer to the building near Jonggak Station with the Taco Bell. It now has a "VR Game Cafe" on the second floor.)

At that time, in order to join, they had to spend their school tuition or school expenses to buy alcohol for members at disco halls.

In the afternoon, they spend time in music cafes before the discos open at 6pm. Among them, there are many runaway youths, and at night they live together in inns or late-night coffee shops.

erty to Korea," you tell him.

"That's practically my name," he says. "I propose a toast, to a return to the way things were."

You take a drink. The glass falls out of your hand. You can't move at all. You've been paralysed, by something in the drink.

Among these punks, there are "casuals" that seek out pleasure but do not harm others, and so-called "bullies" which are made up of bad boys who were expelled from school.

They use words people do not understand, such as "full" (attractive and rich), "subjective" (well-dressed), "got it" (promiscuous), "shahada" (fresh), "stamp" (have sex), "food" (female). (Editor's note: fffuh, I couldn't get a whole bunch of these at all.)

"The introduction of indiscriminate Western culture and the recent decadent indulgence of our society have been reflected in youth psychology, and families that have weakened control over their childrens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and family disagreements have become a living room for punks," said Kim Jae-eun, professor of education psychology at Ewha Womans University.

"The only way to heal this is to create a healthy family and social atmosphere."

You meet up with Hong, a fellow resister who's in a position of power.

"I want you to help me bring lib-

"Sorry, old habits die hard," he says.

THE END

Book 'em, Dan O.

Jon Twitch



Dan at GBN Live House on Dec. 30, 2017.

In a rare scoop, I'm printing an interview with Dan, an expat fixture of the local metal scene who's taken on a bigger role lately.

He's bringing stoner metal bands Guevna (Japan) and Alpaca (China) to Korea on October 20.

Broke: Who are you?

Dan: I'm a Guatemalan/American living in Korea (dang that's a lot of countries) living here as an English teacher, now teaching at a public high school (Sudo technical high school, totally awesome school and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Been into metal since I was 10, hearing of Metallica from watching Beavis and Butthead, and then heard bands like Slayer, Razor (Canada), Hiras (USA), and from there on thrash metal became one of the biggest loves of my life. I of course like a wider variety of metal, from speed, heavy, epic, speed, doom, death, black, and power metal. I also enjoy doing martial arts, and have been doing Muay Thai for quite a few years, even participating in a few ring fights as well. I also got a Master's degree in TESOL, speak Spanish, Japanese, and Korean.

Broke: I've heard a handful of people describe you as Korea's biggest metalhead. How much or little do you agree with that?

Dan: I'm not sure about that. There's a few other guys around here equally deserving of that title. Although I would say I really enjoy the music, enough for me to go to different countries to see festivals, and I can say I'm quite knowledgeable about metal both past and current, hard to judge who or what is "more metal" than someone else. There are some online communities out there who are also quite big into metal, such as Circle of Tyrants who are also quite the metalheads with a pretty vast knowledge of metal. One thing is for sure though, I fucking love metal!!

Broke: How did you get into promoting metal shows in Korea?

Dan: Wanting to quench my thirst for Old School Metal, I have taken trips to Japan and Germany to see metal festivals. One such trip was my annual True Thrash Fest in Osaka, Japan (probably THE BEST thrash metal festival ever), the 2017 edition featuring German thrash legends Darkness (they're good friends of mine and are releasing a new album as I write

this, titled "First Class Violence"). There was this one Japanese band, Riverge, who are co-organizers along with Mikitoshi Matsuo (who also runs Rock Stakk Records, based in Osaka). I told the guys from Riverge and Mikitoshi that they should do a Korea show one day and they seriously considered it, asking if I would organize it. At first I tried talking to other promoters, but that promoter told me that I should try being the one organizing the gig. After hearing both Mikitoshi and Yuying ask if I would organize, I didn't think I had what it took to be an organizer to be honest, but I just went ahead and gave it a try and next thing I know, I'm the one inviting Riverge over to Korea and they seemed to put up quite the show in Korea. I hardly ever get to hear thrash metal in Korea so for me to bring such a band from the 80s here to Korea, and seeing all these people enjoying what I put together, it was a very great and humbling experience. Then another band was trying to come, whom I was quite close to from Canada called Visions of the Night. I worked again to organize that gig, and then the rest is history. I decided I wanted to start doing more of these shows so that

I can try to help and develop the Korean metal scene.

Broke: A lot of people in the punk and metal scenes these days seem resigned to the fact we listen to old people music now, and younger people aren't listening anymore. Where do you stand on this?

Dan: Oh, those people don't know jack squat about what's going on in the real metal underground. Metal is quite alive and well and I am very much sure that it's here to stay for a long time. Metal has always been a way of saying "** you" to the establishment and to modern trends. There are tons of younger metal bands coming out these days. And no, I'm not talking about those who are following said modern trends, but these are young kids playing True Metal as if the 90s never happened. While in the flooding market of bands, many can be generic, I will gladly give out names of some of the best of the new modern metal bands: Ironflame (USA), Seax (USA), Oxygen Destroyer (USA), Visigoth (USA), Eternal Champion (USA), Excuse (Finland), Blood Incantation (USA), Evil (Japan), Nightbreed (Greece), Speed Queen (Belgium), Hitten (Spain), Blazon Stone (Sweden), Lucifer's Ha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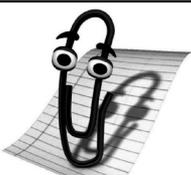
(Chile) are just a few of the young bands who are out there performing some killer metal. So yeah, that "old people" music they're talking about is still alive and being performed by the younger generation. Are perhaps guys in their 20s too old? Well then check out Sepsis (USA) and Fatal Agent (USA), both bands are made up of high school kids but they perform death and thrash metal straight of the 80s and early 90s. If this doesn't say that metal has indeed stood the test of time, I don't know what will. So yeah, anyone who says metal is exclusive to older generations have not a clue. I can go on even further to disprove that statement, but I think I've made my point.

Broke: What does the Korean metal scene need to grow? What are some of the biggest problems facing it?

Dan: I wish that both bands and fans in Korea would broaden their horizons dig deep into international and underground metal bands instead of just limiting themselves to just the popular bands. They might find something that they might potentially genuinely like if they searched a bit harder. There also seems to be an attitude among older bands called "kkondaee," which is a bit connected to the Confucian ideas of "respect your elders" but is taken to an extreme and the older people may abuse this authority. This results in some of the older bands being jerks to the younger kids who are also in bands, and in turn, the younger bands potentially resenting the older bands. Another problem is that many local bands apparently aren't trying to bring their music abroad, limiting themselves to Korea or at the very best, the odd show in Japan. Many of these bands don't even have a Bandcamp account. The only exceptions I can think here are bands such as Wasp Sting Danger, Fecundation, and Huqueymsaw who understand that in order for their music to succeed, they should spread it as far and wide as possible. Fecundation and Sahon are doing really well at this. Fecundation have toured in Japan, China, and Thailand and will soon go to Russia. Sahon has just come back to Korea from a European tour, opening for UK thrash metal legends Virus. More bands should try to follow this example. One more thing that irks me about the Korean scene is the fact that this already small scene is so divided. Contrary to what a lot of naive metal-related

It looks like you're building a military to overthrow the government. Would you like help?

Get help with overthrowing the government. GOTO page 24
Just overthrow the government without help. GOTO page 22



- NEKROROZCO PRESENTS -

QUEENMA

(TOKYO 東京)

QIPACO

(SHANGHAI 上海)



P A K K

HOOPSICK

LEPER TEMPLE

2018 10月20日 (SAT)

GBN LIVE HOUSE

OPEN/STARTS 18:00/19:00 - Tickets 20,000w

Slumping School



memes love to say, the metal community will NOT be some happy community where everybody loves each other and gets along. There are going to be clashes in personality, that's a given.

in the air like an angry 5-year-old throwing a tantrum, is nonexistent. Since this action can cause harm to other people including those who are not interested in getting into mosh pits, I'm glad about the total lack of this. As far as our local bands, there's some bands I enjoy. Some band names I would like to throw out there would be Nocturnal Damnation, Wasp Sting Danger, Elan Vital, Nocturnal Cremation, Maverick, Fecundation, Leper Temple, Storm, and Gonguri. We got great shops like Dope Records, located near Mapo and Gongdeok stations and an awesome record label in Colossus Records who are releasing some awesome extreme and power metal.

Broke: What is your impression of the Korean metal scene as it is? What does it do well?

Broke: What did you think of "K-Pop Killers"?

Dan: We are a very small and tightknit community full of good people on all sides. Yeah sure, we don't 100 percent get along all the time, but I love the people of this scene. We do what we can with what we've got in order to bring the good bands to Korea. I'm no millionaire and I wish I can do more for the band that I have invited to perform here. However, we got some great people trying to put up awesome shows here. There are a few organizers besides myself who are bringing in some amazing bands to Korea and I really respect what these guys do, they're trying to make something out of something so small, having brought great bands such as Nekrofilth, Angelcorpse, etc. Also, at least in the shows that I tend to go to, crowdkilling — the act of somebody swinging their arms and feet

Dan: It's a great overview of the Korean metal scene, talking about some of the societal roadblocks hindering the Korean metal scene but also mentioning some of the positives of the scene. Ian and Mike are both good friends of mine and I appreciate all the hard work both have put into doing this killer documentary (no pun intended... or was it?).

After a rainstorm, this kindergarten building at Sangdo Elementary School, perched on top of a steep hill, collapsed. Fortunately it happened at night and no one was inside. Downhill from the school, redevelopers were clearing out a shantytown to make way for new developments.

"We need more mushrooms man!" you tell Choi. "Do you have more?"

death. You find a fire flower growing in the murk down here, and it grants you the power to shoot fireballs from your fingertips. You and Choi emerge from the underground level and storm the city. Near Cheong Wa Dae, you leap into the sky and grab hold of a star, which gives you the power of invincibility and everything you touch dies. You leap over

You could live your whole life being a good citizen, never jaywalking, always going to class, never late for work, and then one day something you didn't see coming your way leaps up and kills you in a new and exotic way.

She smiles and squats in the corner. A moment later, a big plastic bag full of mushrooms is lying on the ground underneath her.

There are red mushrooms and green mushrooms. The red ones help you grow big, and the green ones grant you powers beyond

Cheong Wa Dae and run around killing everyone with your death touch. As you storm the palace, you find the new president there, his lizard-like eyes darting back and forth behind his glasses. He begins throwing hammers at you, but you see an opening...he is standing on a platform extended over a lava pit! And behind him is a rope holding it up,

with an axe lying next to it. You leap over him, dodging the hammers, hand outstretched for that axe...

Meanwhile, back at the sewer under the prison, the guards find you and Choi, facedown in the muck, writhing and blathering gibberish. Those were some powerful mushrooms!

THE END

Finding a husband at Seoul Queer Fest

Jon Twitch

Love and restraint were key themes throughout the week leading up to Korea Queer Festival (KQF) 2018. They, and their absence, arose repeatedly.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the nation's top comprehensive university, on Monday hosted a talk by an American claiming to be an ex-homosexual.

SNU students, enraged, showed up, but they used restraint, remaining civil. They handed out flyers and sat in the front row during the talk. One student reportedly interrupted the talk and stormed out, but students report she returned and apologized.

And then the students had a lot to say during the Q&A period after. Darrion Skinner, the speaker, said he still had homosexual urges and struggled to fit into a heterosexual union. Is he an ex-homosexual, or a tortured homosexual who refuses to live up to his full potential?

Both sides showed restraint, as opposed to tolerance, as each side's best wishes would be for the other to disappear. And neither side wanted to give the other the fuel to accuse them of hate.

A student reported he called the building managers about why they agreed to host the event, and they said it was basically to give equal time to both sides. However, the scientific consensus is that any form of sexual conversion therapy is bunk and mentally harmful.

Science won't sway homophobe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whom are Christians. So rather than throw statistical or medical facts at them, members of Korea's LGBTQ community are left with questions of re-

ligion, faith and love.

I haven't been to the parade since 2015, mainly because of how painful it was to see the hate and ignorance in the very active protesters. They usually set up a big rally in front of Deoksu Gate and try to drown out the noise of the pride festival. In 2016, the parade coincided with the RASKB Garden Party, and attendees heading for the British Embassy had to wade through a large, loud anti-gay protest.

This time again there was the usual rally, and it was loud but small this year. Just as pro-Park Geun-hye protesters have been making use of flags, this one also had giant Korean and U.S. flags, likely unaware the newly arrived U.S. ambassador, Admiral Harry Harris, a Trump appointee no less, was across the street from them at the U.S. Embassy booth in Seoul Square.

I stayed away from them, and the first Christian banner I saw, in front of Wongudan, had a fresh message: "We are against homosexuality [sic] because We love you!" Words of restraint, compared to the usual messages we see. Of course opposing homosexuality leads to stigma, family separation, blocked access to medical care, mental health issues and suicide. The protesters would say it's homosexuality which causes these things, but they don't see they've bound their own hands.

I decided I would look for love at KQF. Not literally love because it was everywhere around me, but for where it appeared on signs.

One protester walking around with big colorful anti-gay signs wore a shirt that said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with the first letters in blue to spell out "FAMILY." His intent was probably to promote family

values, but it better implied reconciliation and love growing stronger than hate. Should a disowned queer kid go back to their family and try to suppress their feelings? They may find themselves no longer capable of love. It is the job of the parents to decide whether they can still love a child whose sexuality wouldn't be their first pick.

As the parade prepared to leave Seoul Square, protesters showing neither love nor restraint tried to get in their way. Elderly men waved sandwich boards and banners with anti-gay messages. A couple hundred or so smirking young men ran into the middle of the street and fell into a huge pile. One buckaroo in a cowboy hat ran past the police line and led a half dozen police in an amusing rodeo-style chase.

I got onto an elevated place and found myself standing next to an elderly man holding a banner showing two men kissing. The police tried to remove him earlier but I guess he convinced them he wouldn't physically disrupt the parade. Throughout, his body moved along with the music. His thing seemed to be to wave and smile, and once people were looking, he'd whip out his banner. I invited more people up so they could see the parade, giving him less room to occupy. Probably a lot of paraders will have pictures of this one guy with the banner, and a bunch of normal people standing on either side of him.

Finally the parade arrived, and they brought love. "I love who I am," one handheld sign read. "Love is for everyone," another.

"Power to women," said one. And a large banner, "My body is a battleground."

"LGBTQ welcomes refugees,"

said another. Sexual minorities often find themselves refugees, not just in war-torn countries but anywhere, including advanced nations. A high number of sexual minorities have experienced homelessness, or feared they might become homeless. Refugee rights, women's rights, and LGBTQ rights have a great deal of overlap, even if there are social barriers between them.

"E.T. Love LGBT," read a heart-shaped sign carried by someone in the Raelian section. Their biggest banner had a stronger message: "To believe one is heterosexual is an illusion," which has a scientific basis.

One guy near the back of the parade saw the elderly man next to me, and held up his middle finger and shouted profanities. In a fit of mischief, I smiled and said in a friendly way, "Hey, don't talk like that to my husband!" The parade, not getting or maybe not hearing my exact words, turned his attention on me, shouting "I hate you!"

I honestly can't fault him for his reaction, as the level of hatred he probably endured that day from Christian protesters was high. I recall how messed up I felt after attending the 2015 opening event and photographing the Christians and their signs, and for that matter how I felt exactly the same after the 2012 Shinchonji Olympiad. I imagine this guy yelling at us probably went through the same thing after.

Because of who I was standing next to, I appeared in probably a lot of pictures taken of one particular anti-gay protester, standing very close to him. I deplore his message but have to respect him for not being one of the violent ones. And I'm glad only one marcher hurled hate in our direction.



Before the Seoul Queer Festival parade, an elderly Christian protester hoists a banner (left) and argues with the police about staying.

You show up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letter in hand.

"I believe I have an action plan to overthrow the government and reimpose the Saenuri order," you tell them, handing over the paper.

The general looks it over, then he stands up. "Hey guys, get a load of this!" he shouts.

Instantly he's surrounded by several aides.

"This bitch wrote 'To womb it

may concern!'" the general laughs.

The whole army laughs you out of the building. They don't even look at the rest of your proposal.

Humiliated, you return home. There at your desk, your computer

is still on. Clippy leers out at you, as if asking "How did your proposal go, chump?"

Should've used Clippy.

THE END

BURBERRY MAN THE BURLESQUE SHOW

By Twitch and Verv

Burlesque seems to be everywhere these days, with performer groups in Seoul exceeding a countable number. So two of the most perverse minds behind Broke in Korea drafted a burlesque play that could be acted completely nonverbally, or with only a line here or there so viewers have some idea what is going on.

It is our tribute to the burberry men that once haunted every girls' school, greeting young female students with nudity, or just watched them and masturbated. Changing attitudes seem to be branding these trench-coated vigilantes as sexual predators, rightfully, and this play returns us to a time when this was considered an innocent act.

The set design is in front of a school named Sonyeo Girls' High School with either a wide gate or two different gates. There is also a second school called SKY University with one gate, off to the side. Ideally stage exits would mean you could have a small cast of actresses in identical schoolgirl uniforms rotating through to make it seem like a full school.

The cast involves three male dancers and numerous female dancers. We will call the male dancers A, B, and C and the female parts are more collective without specific recurring characters.

A lot more could be done in production to make this a short play or a longer one full of solo performances. Obviously the choreography and what is meant by flashing should be left up to the production instead of us.

Act 1

A is outside gate 1 flashing girls as they rush by entering the school. Most of them

shriek and run into the school, but some laugh at him.

The schoolbell rings, and A is left all alone. He paces back and forth, smokes a cigarette, works out a routine for when they return.

The girls come out holding test papers with a bright red A written on each of them. The first ones come out and show him, and he is very proud of them and gives them a congratulatory flash. One plants a kiss on him. They do a bit of a strip tease for him, as they attribute their good test scores to his flashing.

One girl comes out with a paper that says D, and A pulls out a red pen and draws a second D so it says DD, at which point she does a burlesque performance for him showing off her endowment.

Act 2

A shows up early in the morning to start flashing girls. But on the other side of the stage, B is standing there flashing girls too.

A notices this and takes issue. B flashes A, and they begin a flash-off burlesque dance. The assembled schoolgirls cheer them both on.

After school, the girls come out again with more test papers, but now they're thanking only A or B. The ones who thank B all have A+.

Act 3

A and B arrive early for another morning of flashing girls. But standing at the gates they find a group of girls assembled, wearing SKY University logos. These girls heard Sonyeo High has the best burberry men, and they want to lure away B so they can get

better grades. They perform a dance that ends with taking B away.

A is sad, and when the high school girls show up he isn't in peak performance. They try to comfort him but he is heartbroken.

At the end of the day, the girls come out, and their grades are all B and C.

Act 4

A comes to the school and starts flashing the girls, but then C shows up, wearing a big trenchcoat that appears to be hiding a huge erection. He tries to be a bit more grabby with the girls, which they don't like.

A approaches C, and the two of them scuffle. A opens C's trenchcoat, revealing his erection to be only a stunt cock. There is probably a loud boioioioing sound effect. While it is in his hands, a teacher comes outside and chases both of them off.

A, in hiding, watches as the girls come out after school, all with low grades. The worst is the girl with a D, who draws a second D, but without any burberry men, the magic just isn't there and she doesn't do a dance.

Act 5

A goes to SKY University with some of the high school girls, and they have a burlesque-off to win back B.

B returns to Sonyeo High to dance for the girls so they'll get good grades, but the SKY students hold onto A, and he ends up dancing for the university students.



“Stop being such a fucking troll!” you shout, shoving him backwards.

He falls against a door, grabbing a handle to right himself. The handle shifts downward in his grasp, and the door opens outward, sucking him out of the plane.

You rush over and get it closed, just getting one glimpse of him impacting the ground far below, right in

the middle of a section of desert filled with especially prickly cacti.

“Oh shiiii!” a nearby aide cries. “She killed the president!”

“Sorry, I didn't mean to,” you say, expecting them to arrest you.

“Are you kidding?” the aide cries. “The curse is lifted! You freed us! So, now what?”

“Why are you asking me?” you ask

him.

“Because, whoever kills the president, becomes the president,” the aide explains to you as if you're an idiot.

“Well that's pretty careless,” you remark.

“It's in the Constitution!” the secretary of state, sitting nearby, mentions.

“How about it?” the aide asks. “Would you like to be our president? We were due for a woman next anyway.”

“Sure, I'll be your president!” GOTO page 35

“No thanks, but would you let me borrow your military for a bit?” GOTO page 24

The weirdest conversation I've had on Reddit

Jon Twitch

Here are excerpts of a weird conversation I had on Reddit a few months ago. The person, who I'll identify just as Red Pill, posted on /r/korea looking for Koreans saying positive things about Trump. He didn't quite get what he wanted but was cordial about it, and slowly teased out more facts about himself. This conversation isn't totally linear, and happened in three bursts.

One third guy intervened, and it was clear he was also afraid of white genocide.

All usernames have been changed so you can't easily find it online, but our three usernames bear some resemblance to the originals.

Also note the graph which has been inserted into the conversation where the dude linked it.

Red Pill: According to Reuters, Moon said "President Trump should win the Nobel Peace Prize. What we need is only peace".

Is that a fair interpretation? Did he mean:

1: "Trump deserves the award, since we in South Korea need peace"

Or:

2: "Trump can have the award, all we care about is achieving peace".

Or something else?

Broke: Yes, the quote revealed something totally transactional — paraphrasing "give it to him, if we can get peace out of it." Trump had previously asked Moon for credit, and it is plainly obvious his sole motivation is self-satisfaction. There has since been reporting about Moon manipulating Trump into these talks, though pretty well every world leader has found a way to manipulate Trump.

There are a few pro-Trump regulars around here, but they are generally not respected for obvious reasons. Myself, I think Tila Tequila would have made a much better president. She's Asian-American, and she's good with neo-nazis.

Red Pill: Thanks also for your opinion. I thought I remember hearing that South Koreans in general love Trump now because of the new peace in Korea that is dawning. Maybe that was an exaggeration?

Remember that Reddit is biased towards the Left in general compared to most s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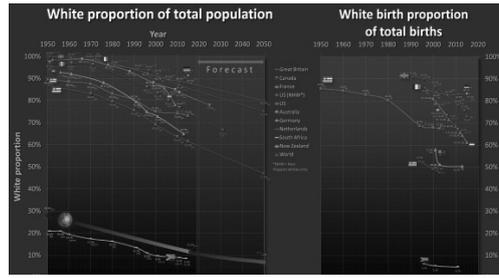
Red Pill: Am Trump fan, but love stats like this.

I wonder how much SK's view of Trump will go up for this year since it only goes to 2017.

Broke: You like Trump and statistical facts? I thought all Trump supporters saw reality as the enemy.

Red Pill: You may also be shocked to hear

I'm an atheist, accept evolution, man-made climate change and that a universal income is a good idea! No hatred from me, just really sad about this (yep, my graph that).



Broke: So you're some kind of racist. Then what do you care about Korea, a nonwhite country? And yes, there are white people here, but a lot of us would be likely to have half-white kids, and anyone who sees that as bad deserves a shove in front of a bus.

Red Pill: "So you're some kind of racist." That implies hate, and I do my best to avoid that.

"Then what do you care about Korea, a nonwhite country?" Funny you should ask. I actually have a lot of respect for Korea (well South Korea since I know more about it), and in some ways think (along with Japan) you're better than us, in culture, and in some ways even fundamentally as people. And I love a lot of your music and even the accent! That doesn't mean I don't care a lot about white people and the predicament we're in obviously. To make things even more confusing, I'm half-Jewish to boot.

Broke: You sound fucked up. A half-Jew who buys into neo-Nazi propaganda, and you listen to K-pop? I've known a lot of troubled alt-righters—I even know a half-Korean one who is attracted to the most white supremacist of their messages, but at least he doesn't listen to K-pop.

Red Pill: Okay, nevermind. Have a nice day!

Broke: Just gonna leave this here: https://en.wikipedia.org/wiki/White_genocide_conspiracy_theory

(The white genocide conspiracy theory is a neo-Nazi, alt-right, white nationalist/supremacist conspiracy theory, which contends that any one of; mass immigration, racial integration, miscegenation, low fertility rates, abortion, governmental land-confiscation from whites, organised violence or eliminationism are being promoted in either predominantly white countries, or supposedly white-founded countries, to deliberately replace, remove, or liquidate white populations; dismantle white collective power, turning them minority-white and hence causing white people to become extinct through forced assimilation or violent genocide.)

You don't have to tell me which part of this you agree with, or even what your answer

is to the "Jewish question," or even if you think yourself reproducing with fully white people would further contribute to white genocide.

European Supremacist: White people are being demographically replaced in our nations this is an indisputable fact and if it were happening to any other group their would not be a Wikipedia article about it calling it a conspiracy theory. Jews need to be removed from our societies.

Not everyone you disagree with is a neo nazi (what ever that means today). You probably couldn't define what a nazi is without looking at Wikipedia, anti-white.

"ohhh, let me open up Wikipedia (run by leftists) they have an article that says what you think is a conspiracy, full of sources linking to other leftists calling it a conspiracy theory!"

hand rubbing intensifies

Broke: "Jews need to be removed from our societies"

Red Pill, your thoughts?

Red Pill: Wow, this escalated didn't it?

I didn't really want to go into any of this. Jews are some of the most creative and intelligent people around. However, there's no doubt we can swing heavily left, and disproportionately hold positions of power in the media (where we can be of influence), and also disproportionately favour third world migration to white countries. That's not to say white people can't also be inclined this way of course. Maybe in Israel, Jews are less like that? I don't know.

Regarding European Supremacist's comment, if it meant reversing the trend of whites becoming minorities in their countries, I would be one of the first to be deported, as sad as that would make me feel. As long as they don't hurt us or use violence, I would be happy overall.

Broke: Oh yeah, neo-nazis are well known for their non-violent methods.

Red Pill: Well I heavily condemn that to the extent it's true of course. I hate violence.

Broke: Then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leader habitually sexually assaulting women, or ordering nonwhite critics of him to be violently punished? Certainly the people pushing the whole "white genocide" conspiracy theory you've bought into are very violent, even if you don't believe the Holocaust wiped out 6 million of your people and several million more.

Red Pill: As I said, I condemn violence, so to the extent any of what you say is true, then I agree with you. I think things can be solved with the pen, not the sword, and that many people (both far left and right) unfortunately think violence is the only way to further their goals.

Well that was easy. You have the arsenal, so now it's time to strike.

Fortunately, along with your military acquisition came the personnel.

24 "We could either wage out-

right war, or stage a false flag attack," your military advisor advises you.

"Oh, like they did on 9/11!" you exclaim.

The advisor rolls his eyes at you. "There are no voters listening in right now," he tells you. "No need to sound totally stupid. Which strategy should we pursue?"

No need for deception. I want this to be surgical and decisive, just like my princess' father. GOTO page 25

Let's do false flags! Just like 9/11! GOTO page 33

My good ideas (for you to use if you like)

Jon Twitch

After Pussyfoot Saloon opened in Hannam-dong, I sat up and took notice. The interior was done up to look like an old-timey train car, and the windows played a side-scrolling video of a landscape to give the impression of being in a train. That's exactly one of the four ideas I had for a bar back in Broke 16 (along with surf bar, doo-wop bar, and classroom bar, investors...?).

With the newfound awareness that my wishes could come true if I write them in a self-indulgent zine article, I came up with several other ideas that could make interesting businesses for someone with more time than me.

Just like last time, these ideas are open for anyone to run with.

I won't ask for royalties but I might take credit for inspiring you, even if like PF Saloon you never heard of this zine.

Cat's pyjamas: body scan your cat's fur coloration and print pyjamas for yourself. Option to make a full fursuit if you pay a lot extra, because seriously that's getting weird.

Garfield's: Too many restaurants close on Mondays, meaning if you want food on a Monday you're out of luck. So instead, how about a pop-up restaurant called Garfield's, which appears in somewhat random locations rented out from restaurants closed for the day. They serve lasagna, Garfield's favourite.

Kompromat generator: schedule your computer or mobile device to make random Google searches for a poten-

tial kompromat that is easily disproven or something that wouldn't bother you. And then if your search history is ever leaked, they'll have nothing on you.

Modular rooftop hanok: There are so many unused rooftop spaces, and it seems like modular housing would be perfect for such locations. Why not modular rooftop hanoks? Imagine what that would do to the city's skyline.

Pedestrian Chicken: fried chicken served smushed flat, signature tireprint texture.

Sundae, Bloody Sundae: a restaurant serving sundae and sundaes (the first being intestine, the second being ice cream).

Phone remote control app: you always lose the TV remote, but never lose your phone. So why

not just make an app for your TV to be controlled by your phone? Why wasn't that the first internet of things product?

Remote controls: they have too many buttons these days. How about make one where the buttons you almost never use are located on the back?

Manchocheon underground park: After Yongsan Garrison is returned to Seoul, it is likely they will fully daylight the stretch of Manchocheon cutting through the former military base. But what about the section running from the base to the river? It's at least 1.5 kilometers long. I propose the use of mirrors to reflect sunlight down there, and turning it into an underground botanical garden. Only problem with this one is, where will I celebrate Christmas?

Bimonthly Bootfuck: 14 social media annoyances

This issue, social media gets the bootfuck. It's bad enough it has eroded US democracy and hijacked how we socialise with others and interact with the world around us. The least it could do is keep us adequately entertained and comfortable. But instead, social media has created new nuisances and ways for people to piss each other off. Maybe in 50 years social media will still exist, and there will be strict etiquette we don't have now.

Gif replies

Sometime recently, Facebook made it so you could reply with a nonverbal animated gif, or one with some basic words. The effect was immediate, and most easily noticed in idiotic places like OinK, where text gave way to images, making things much less dense and making the reader have to look farther to read what people were actually saying

1-word message: Sometimes I get a "Jon" or a "hi" or something equally half-assed. The person then usually keeps typing the rest of their message. But like, why did you send me this warning? Now I have to spend 30 seconds waiting to see what the hell your follow-

up message will be. And sometimes people just leave it hanging, like they're waiting for me to reply so they know I'm on the other end of whatever device so they can start interacting with me live. I almost always ignore when people do that too.

Tagteaming: This doesn't seem to happen as much anymore, but it was a common tactic of keyboard warriors of all types. "What? You think Trump is a moron? @Jacob @Travis @John @George." And then you have all these assholes getting angry at you online.

Thumbs up in messenger: The thumbs-up in Facebook Messenger is irritating. Granted, you can make it large or small, and you can swap it out for other things. But ultimately, when someone deploys it, it's code for "conversation over but I don't want to spare the energy to end it verbally." When someone gives me one of these, I end the conversation.

Angry face response: Facebook changed it so you can not only thumbs-up a message, but also laugh, be scared by, love, cry, or be angry with. A lot of those have their place, but when someone gives me the angry one, I can never tell how they actually feel. If they re-

ally are angry, sending a digital face seems too cute a way to express that. Are you angry, or are you just joking?

People can follow you: So people can send you friend requests and you can accept or ignore forever. Or people can just "follow" you, which means what exactly? I don't know you well enough to send a friend request, but I want to monitor your social media activities. No thanks.

French flag profile filter: Charlie Hebdo was almost three years ago. Why are we still seeing people with the French flag filter over their profile picture? There have been so many other scauses for you to get worked up about over the following years. Hell, that one wasn't even the worst attack in France. And of course it's not French people ever. Also still common on Tinder.

Happy Birthday firewall: When you want to learn about a person, and you click on their profile to look around, it's all good, but if it was their birthday recently, good luck getting past that without your browser freezing up.

Sales notifications: Facebook was in a hurry to find some way to monetise itself, so it was a little too eager about send-

ing out notifications every time something was put up for sale.

When people send you content they could just as easily post for you to passively see: You have the option to post a video or news article publicly for everyone to see. But some people send random content like this to an individual friend, or start a group chat and send it to a ton of people at once. Why? This is a messenger. Save that shit for your newsfeed where I can see it or not.

Group chats: These in general suck.

"X has left the group": Months after someone started a group chat to contact 50 people, then some random person decides it's time to withdraw. So all 50 of you once again get a notification your cousin doesn't want to watch the video your grandmother sent all her friends last spring.

"X just joined Messenger! Be the first to send a welcome message or sticker": This happens when someone who's already been your contact gets a new phone I guess. I don't really care and I don't see the need to ever reach out to a friend just because.

Poking: Yeah, we haven't forgotten you. How has Facebook not erased this one?

Oh yeah, this is happening.

You choose an American holiday, let's say Wear Flag Sweatpants Day, so the USFK is totally unprepared when you lead a tank convoy

rolling into downtown Seoul.

The military fights back fiercely, but with the forces — and finances — behind you, they're hardly a match.

Soon your forces have overrun Seoul.

The current president crawls out from wreckage, and comes out into the open, fists clenched, glaring up

at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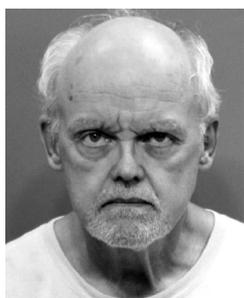
I'll face him. GOTO page 27

I'll strike him down from here. GOTO page 37

Do colonoscopies make you gay?

With the anti-vaxxer movement spreading fear of science and disease across the planet, I wanted to see if I could come up with an even stupider and more harmful anti-science grassroots movement. I came up with something perfect, that threatens masculinity and also would increase cancer risks if it were spread: the fear that getting a colonoscopy would activate homosexual tendencies that would make the recipient gay.

It's a perfectly stupid mix of factors that I couldn't forget it. Here's a look at the beginning of the anti-colonoscopy movement, let's call it anti-colo. And our resistance to this cancer-detecting, life-saving procedure everyone should do as they get older is known as Citizens Outraged Over Colonoscopies United (COOC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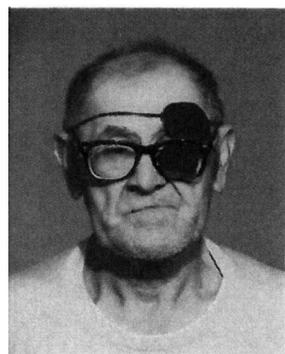
What if I like the sensation of a camera shoved up my rear? I have an enlarged prostate, what if it makes me orgasm?



I was having gastric problems, and my doctor told me I should get a colonoscopy immediately. I replied, "Whoa sailor, at least buy me dinner first!"



Better to not have a colonoscopy and trust God to protect me from bowel cancer, than to risk His wrath over me getting my jollies with a camera up my bum.



Jesus never got a colonoscopy. Nor did anyone in the Bible, except possibly some of the sinners of Sodom and Gomorrah.



Do you know what they put in a colonoscope? The outer cover contains polyurethane elastomer and polyester elastomer, does that sound like something that's healthy to put in your body? Polyurethane is also found in adhesive, Spandex, condoms, and skateboard wheels. But does your gastroenterologist ever tell you that? Worse, polyurethanes such as the one in that flexible tube are produced by reacting an isocyanate containing two or more isocyanate groups per molecule ($R_2(N=C=O)_n$) with a polyol containing on average two or more hydroxyl groups per molecule ($R_2(OH)_n$) in the presence of a catalyst or by activation with ultraviolet light. Isocyanate literally contains cyanide atoms, a known poison. Polyols are used to make a type of sugar alcohol: what are these perverted "doctors" trying to jam up your "prison pussy"? And ultraviolet rays are well-documented to cause cancer. Have you ever stopped to ask, are colonoscopies really detecting cancer, or are they just detecting the cancer they themselves caused?



Vitaliy Rasmanov went in for what he thought was a colonoscopy, but when he got there, all he found was a gang of gay-bashing thugs who had entrapped him. They dropped him out a four-storey window, and he died en route while looking for another hospital that would treat his sinful ass.



My husband of 30 years went in for a colonoscopy, and afterwards, he seemed withdrawn. A few days later he came home from a follow-up appointment at the doctor's office, packed his suitcases and left. Tracking his credit card purchases I discovered he was staying at a gay resort in the Bahamas. A week later they shipped him home in a coffin. The doctors say it was colon cancer, but I know in my heart it was full-blown AIDS.



I know I should go in for a colonoscopy to check for all sorts of types of cancer and other illnesses. But on the other hand, I love my wife. What's a 50-year-old straight white man to do?



I am a female, with a nice set of curves if I do say so myself. My colonoscopy was not pleasant, probably because I don't have a prostate, which is often called the "male g-spot." It ruined my sex life with my boyfriend, no longer was I willing to try anal, but vaginal penetration was suddenly unpleasant too. My boyfriend keeps asking if my colonoscopy made me gay, and I have to admit I have found myself looking at women in the locker room a lot more lately.

The plane dips to land and Trump spills his Coke. Angered he goes to the cabin and convinces the pilot to let him fly the thing. The 747 comes in for a landing on Jongno, crushing cars and buses. He actually did a pretty good job, all things considered, except the collateral damage) on the ground which he clearly didn't. And hey, if they're

going to die, at least they're going to die over here.

Statistically, you remind yourself, more of them supported the current leader than your own princess.

He parks in the square in front of Jongmyo, puts on the steering column lock, and leads you outside.

The South's president is there waiting to greet you, at the end of a

50-meter-long red carpet.

As you follow Trump toward your own president, you start plotting your next move.

Trump gives the South Korean first lady a big wet kiss, right on her neck, then turns to the South Korean pre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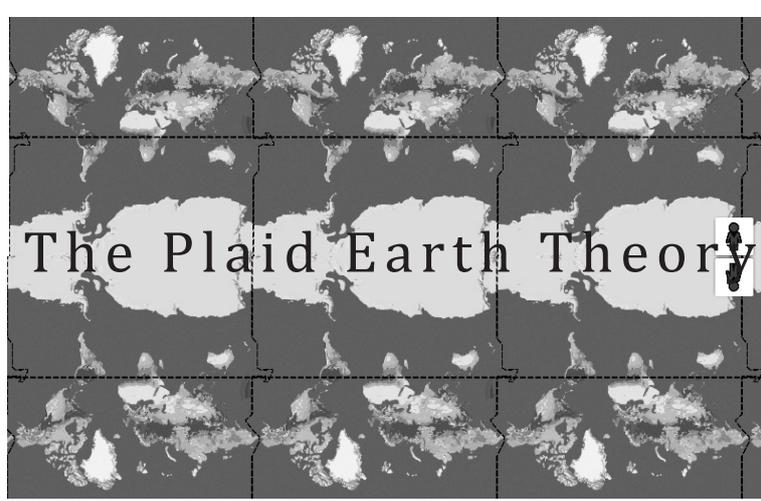
"What, only 54.6807 yards long?" he laughs. "Where I come from, our

red carpets matter."

You grab a gun out of the holster of a nearby Secret Service agent. Time to make your m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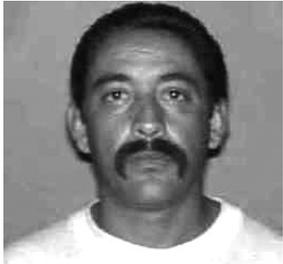
I'll assassinate the Korean president. GOTO page 28

I want to expose him for the world to see, just like the people did to my princess! GOTO page 27



I am a medical professional, x-ray technician license suspended, who for years have been asking for evidence that colonoscopies do not make you gay. Their silence is deafening.

Would you rather be gay, or die of bowel cancer? Exactly, me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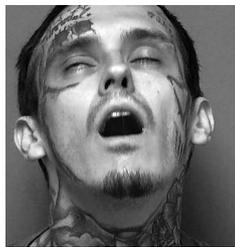


You wouldn't stick a shopping cart wheel up your butt, would you?

We advocate rather than going in through the bum, an exit, instead going in through the mouth, or making an incision somewhere between the two.



Proctologists call it the "momb," short for "male whomb."



They put me under, and I felt nothing during and after my colonoscopy, no sexual stimulation, no anal looseness. But my employees all looked at me differently, like they knew. I lost all authority at work and went out of business. Now I've moved back in with my parents, who God bless 'em have stood by me in these trying times. I am now seeing a therapist who specializes in gay conversion therapy. But no matter how many electric shocks they subject me to while looking at homoerotic imagery, no hole can ever be unfucked.

I have known I was a gay man since long before my first colonoscopy. The problem is, I discovered my "male g-spot" is deeper inside me, located in my sigmoid colon which is a hard right turn about six inches in. I am still looking for the right man who can please me, but my gastroenterologist is quite happy to assure me once again every three months my intestine is polyp-free.

Jon Twitch

You've all heard the bullshit theory that the Earth is a sphere. And yes, it's just a theory, like the Theory of Evolution, the Theory of Gravity, or the Theory of a Deadman. Hey, that man was living when I met him and he was living last I saw him, and all the songs written about him sucked.

Let's get this out of the way: the Earth is not a sphere. It has mountains, and the sun and all the planets orbit around it. And yeah, do you really think Americans were able to make it to the moon? The same people who voted in Trump, a president so great he retroactively declared Russia the winner of the Cold War? They're still using imperial measurements for everything; what kind of country uses imperial measurements? And when Queen Elizabeth kicks the bucket, are Americans going to be like "How big are Prince Charles' feet? Our top scientists need to know how to recalibrate all their instruments! Quick, we're paying the Russians a billion dollars to put one of our satellites in orbit!"

The world is also not flat, exactly. If it were, whenever you moved away from the exact center, which Torontonians would tell you is Toronto, you'd be walking uphill. So then wouldn't this create a huge basin, that would drain the world's oceans and flood all of lower Ontario? An Albertan can only dream.

So it's not a sphere, and it's not a flat surface balanced atop a turtle, which is balanced atop another turtle... turtles all the way down! I feel you on this, but what would the turtle eat?

We should not be asking what's

under our feet, but what's off in that direction toward the horizon (sorry for triggering you, flat-Earthers).

So I propose the Plaid Earth Theory, which maintains our planet's exceptional geography, while also mixing in a bit of fucked up drugs. If you run your finger over a plaid pattern, you cross repeating patterns of lines.

Likewise, in a Plaid Earth, if you leave Seoul and travel far enough, just like on a round Earth, you end up back at Seoul. But while the global theory _ and let that word sink in, "global," representing everything those globalists who couldn't stop Trump stood for _ claims you end up right back where you started, the Plaid Earth Theory explains, you just end up at the next stripe in the plaid pattern. Old friends greet you, children laugh at you, your wife refuses sex, whatever.

But they're not the same people you knew. You've only discovered, just like a repeating plaid pattern, the next line is identical to the last one you left. So it's not your friends throwing your zine back in your face, not your wife putting you in a gimp suit and stamping on your balls. They are the relations of another version of you who lives in another stripe parallel to your own.

Want proof? Well, where is your own duplicate when you "circumnavigate the world"? They've copied your move, moving up a stripe in the plaid and taking over another doppelgänger's life, while likely another doppelgänger advances after you and takes over your own life. And maybe they're a lot better at being you than you, winning over your friends, banging your own wife, etc.

You could cross from one plaid stripe to the next, supposedly "circumnavigating the globe," but the only thing that's changed is everyone around you.

Only people who've totally gone around the world can say for sure.

You step right up to the president. "You rigged the election!" you say to a president whose popularity rarely dips below 60 percent. "I find you guilty. The charge? Being like the biggest commie ever. The

punishment? Death." Instead of being scared, he grins at you. He takes his glasses off, and instantly you notice something you had overlooked earlier: he looks exactly like Kim Jong-un!

You raise your firearm, preparing to fire.

"Don't you want to know why?" he asks.

"Don't beguile me with your com-

munist words!" GOTO page 28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just a choose-your-own-adventure story with no bearing on the real world, so I'll bite." GOTO page 29



CD Buster

All reviews done by Jon and Buster Twitch

When the Feverish Fail Dirty Rockhon

s/t EP
World Domination, Inc

Like one of those bugs that dies after it fucks, WTFFF squeezed out this six-song album and disbanded after members left the country.

The album both shows promise and destroys hope, even referring to the lineup in the past tense. It was a year in the making, as the band went on hiatus until bringing in Michael (Machines, Food for Worms) as a session bassist and co-lead vocalist.

The songs are all good listening, while not quite going for punk on every one, aiming more for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or at least oscillating between two points. Other articles say it's a new style of pop-punk and namedrop some bands I've

never heard, but to me it sounds closer to dream-pop at times, such as on "Shampoo" and "Rope." "Outsiders" probably skews closer to punk than the others.

The songs differ impressively from track to track, not just by playing with sub-genres but through all sorts of textural changes, such as the instrument-heavy intro to "Rope" and the vocal start to "Outsiders."

Also, oddly, as I've been using VLC Player going through these CDs — Glen Matlock, Dirty Rockhon, Drinking Boys and Girls Choir — this was the only one where all the meta data successfully popped in, somehow.

I've always said liking an expat band is dangerous, because they'll break up soon. Touche.

아취운인생
Nerd Works

Being from Gwangju, these guys are really off on their own, and it's helped them sound like other Korean punk bands.

The songs on this 2016 album are rough and manic. There's a lot of backup vocals used to punctuate a lyric here or there, creating a spontaneous feel to the CD. There are flaws I can hear in the production, for instance, track 2 "Take a Rest" starts a split-second later than it should have, leading to an effect that almost sounds like the microphone being turned on. I'm willing to overlook things like that, or smile at them, because the production quality otherwise brings them to life, never sounding over- or underproduced.

The liner notes are cleanly designed with clean lines, bold colours, iconic imagery, and some sharp-looking fonts, which is why I was surprised the band didn't have much to say about it. There's a lot going on in the liner notes, just as there's a lot going on in the music, but not necessarily the same thing. The cover makes it look like this would be politically driven music, while the songs themselves are way more personal, but no less important.

This album is simultaneously sincere and playful, and doesn't let you become complacent before throwing a surprise in your direction. Dirty Rockhon has become a band I will watch closely in the future.

Glen Matlock

Good to Go
Peppermint

This isn't your grandfather's Sex Pistols.

Glen Matlock was a founding member, yes, but his life didn't begin and end with them, as this album helps show.

This album, bookmarked by "Won't Put the Brakes on Me" and "Keep on Pushing," two songs that'd make fine truck-driving songs, has the kinetic energy of a guy who never wants to stagnate, but isn't afraid of taking the scenic route.

It's clear he's making the music he wants to make, and he's brought an impressive roster of musicians to back him up, including legendary session musicians Earl Slick and Chris Spedding, Stray Cats drummer Slim Jim Phantom, and Sigue Sigue Sputnik guitarist Neal X. The youngest of the bunch is 57 and the oldest is 74.

The music is heavily influenced by rockabilly, with a bit of country twang picking up in the instruments and Glen's vocals. It seems closer to me to the Clash's own rockabilly songs than anything else.

All songs are thoroughly catchy throughout, with the standout to me being "Keep on Pushing," mostly because I can remember him performing it in Cheorwon.

Iman's League

The Eclipse
World Domination, Inc

"They're basically a Korean band now, haha" said Jeff, head of WDI.

These guys have been back in Korea enough times since 2015 I've lost count.

For their fifth release, they went with WDI. The album has a nice illustration of what I'm going to pretend is them standing at the shore of Baekdusan's crater lake watching an eclipse.

The surprise of the album for me was "Gerhana," hearing them sing what I'm assuming is their native language (which I can't guess

at despite knowing they're from Singapore [apparently Malay according to Jeff]). I'm a big fan of punk sung in the band's native language, so that made me happy.

After that is "Riding the 7th Wave," another decent surprise: an instrumental song. It's a nice palate cleanser and well-produced. I've found myself irritated with intro instrumentals, but putting one right in the middle works way better and doesn't make you impatient.

There's a lot to like about this band and this album. It's pop-punk done well and by the numbers, without getting formulaic or predictable.

You lift the gun to take the shot, and a gunshot rings in your ears, louder than anything you've ever heard.

28 But you didn't pull the trigger.

You look down, and there's a hole through your chest. Like, so big you can see out the other side who's standing behind you.

You look up, and a grinning Trump holds a smoking gun.

"What is this, Jongno 5ga? It's not Fifth Avenue, but close enough," he remarks.

And by remarks, I mean he's tweeting it on his phone, and you're just left there dying without know-

ing why he won't even look at you. "Thanks for letting me kill a human, Korea! Consider the washer tariffs lifted!"

THE END

Say Sue Me

It's Just a Short Walk
Damnably

I don't even know if I need to review this four-song album, judging by all the attention it has on Bandcamp. There's a virtual wall of supporters and fans flooding it with gushing feedback.

Other than the fact Say Sue Me has blown up internationally more than most Korean bands, this is them doing an album of covers in their style.

For the record, SSM is not a surf band, just because they use a little distortion in some of their songs. Not even if they're from a city with surfing, have probably played beach parties, and cover the Beach Boys (if I wanted to be really nit-picky I'd go on about how the Beach Boys aren't a surf band either, but at least SSM isn't going for that).

Their cover of Blondie's "Dreaming" is the most natural thing in the world, and if you were a complete luddite you could be forgiven for thinking this is the origi-

nal. Both the original and the cover have a dreamlike quality, but different kinds of dreams.

The cover of "Do You Wanna Dance" by the Beach Boys is less of a hit, as it sounds a bit too much like it was made on valium and the song is a little too simple for SSM to do that much with.

No, Duke Ellington fans, that's SSM covering "Beginning to See the Light" by Velvet Underground. This version is not quite like the original, and Sumi doesn't have Lou Reed's junkie spontaneity, but she injects just the right amount of personality in and clearly has a lot of fun with the song. The original is such a strange song, it's hard to imagine it translating well into a Korean band performing it, but that's part of what makes this version fun.

"Rockaway Beach" is an obvious cover for them, but sends me into a mental spiral imagining what Ramones songs I want to hear from them next. Too many they'd be perfect for...

More Say Sue Me

Where We Were Together
Damnably

As fun as the cover CD was, it's good to have a serious full-length from Say Sue Me.

This one shows them doing what they do best: their own music. "Let it Begin" is a bit of a slow start to the album, ironically, but the pace picks up on "But I Like You" and the jangly, evocative "Old Town." which seems to be the main single. There are slow and fast numbers on this album, and "I Just Wanna Dance" is one of the fast

ones. "B Lover" is fun, and they made a great music video for the song as well that is a lot of fun. This is the kind of album I'd listen to while getting ready to go out to work or a show.

Say Sue Me took the indie scene by surprise by leaping to such a higher level so fast. Not that they don't deserve it, just that the infrastructure all seemed set up for it to be a Seoul band, which we often think of as "representing" the nation. The fact it's Say Sue Me from Busan makes their success all the more meaningful.

The president blinks at you. "What did you just say?" he asks. "I'm not sure!" you retort. "I'm still coming down from those magic mushrooms I consumed in possibly another decision tree!" "Okay, well, that just made what I'm about to say next a little less meaningful," he replies. "You see, I am secretly Great Leader Kim Il-sung, kept alive by secret

North Korean technology. Even my grandson didn't know, until our first summit back in April. When he first recognised me at the demarcation line, he tried to pull me to safety on the North side, but I told him to just play along and follow me into the South. Yes, this has all been a grand conspiracy, to thwart democracy in South Korea, to communise the country by arresting chaebol own-

Leper Temple Talkbats

self-titled
independent

s/t
World Domination, Inc

As I told them in interview, "It sounds sort of like I just opened a basement door and this horrible sound is coming from below." They seem to also like the idea of "sketchy random tape found in the dirt" which makes a good distribution model, especially now that porn has moved from abandoned in the woods to all over the internet.

The songs I received had generic place holder names: "fast," "funeral," "opener," "second," "slow," but I've since learned the real names are "Honey Piss," "Bedstain Blues," "Another Corpse on Everest," "Flexibility," and the memorably named "Untitled." I can't match them up, and to be honest here for a rare moment, I don't think it would affect my enjoyment of the songs.

This album comes across to this total luddite as basically like doom metal when it's having a manic episode. It does its own thing and can be quite a lot of fun.

Drinking Boys and Girls Choir

Keep Drinking
Damnably

I wanted to like this album. I really did. But I couldn't.

Not that their music is bad or anything. I was going to review it, but it couldn't play properly, skipping and freezing throughout every track. I blame the cat.

Next time I see them, I'll just buy a CD.

Talkbats release two songs soon, and a copy of both fell off a truck for me somewhere.

The standout feature of the album is Songi's smooth, comfortable vocals. And Nagi's keytar keeps this band sounding extra unique, especially on "Sonic." If I had to choose between the two songs, I'd probably aim for "Sonic," which is a little lighter and has more fun with the keytar. "반짝이는" is fine, though it starts in with an unnecessary vocal intro that could have worked better.

It would have been nicer to have a few more songs to get a fuller sample of the band, even a cover or two, but for now we'll have to take what we can get.

All I Have

The New Path
(unsure of the label)

This Busan band offers five heavy hardcore tracks on this new EP, whose label I can't find. The music reminds me at times of beat-down hardcore and youth crew hardcore, maybe surfacing right around 13 Steps mid-career.

The lyrics are dense and pained, and well-written all in English. The songs are about heavy topics, especially "Reviving Light" and "Against Supremacy" which both talk about hate (at least if I'm interpreting "supremacy" correctly).

Hey, they even have a beach song! "Busan Beach Blues Pt.2." It is not a surf song.

ers for their criminal offences. My rise to power was nothing more than a communist revolution cloaked as a democratic process!"

"I knew it!" you shout. "This whole time, I knew you were secretly Kim Il-sung!"

"Yes, and now you will face my champion!" the president says.

Who could his champion be? Who could this president possibly h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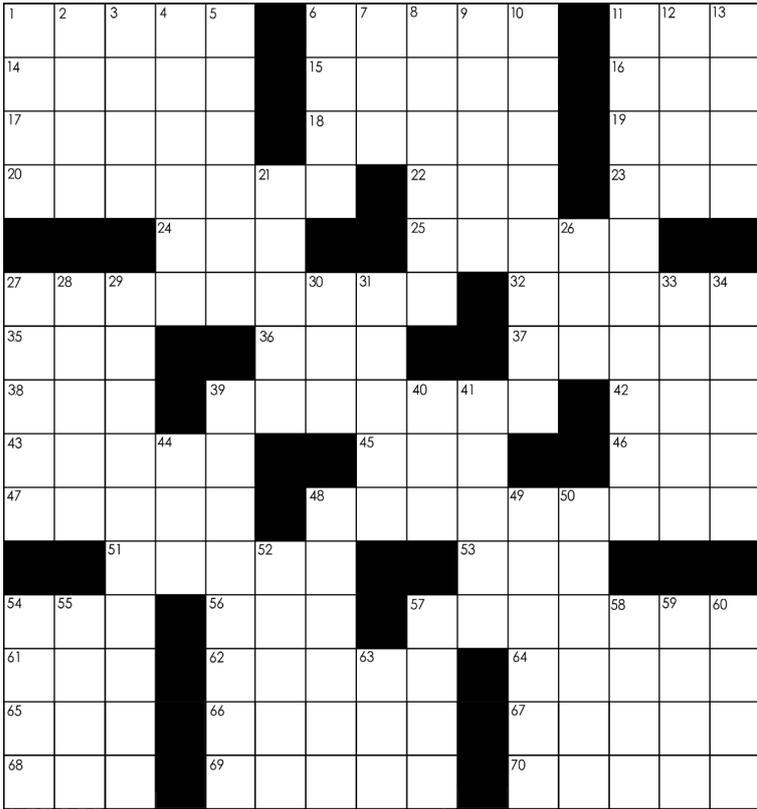
on his side more badass than himself, a former commando who took part in the 1976 Operation Paul Bunyan?

"Arise, Excavator Vigilante!" he shouts.

"Who?" GOTO Broke issue 24, page 2

"I am prepared to do battle." GOTO page 30

Broke Crossword What You Say?



- ACROSS**
- 1 Goes with red, amber, or spoiler
 - 6 Monastery head
 - 11 Jenny ___ Oi! Project
 - 14 Perabo, Billie, or Rowdy Roddy
 - 15 One of the Three Kingdoms
 - 16 Brat
 - 17 Martini garnish
 - 18 Bikini ___
 - 19 King Cole
 - 20 "___ go to the polls"
 - 22 Yob
 - 23 Hospital workers
 - 24 Burgle
 - 25 First album
 - 27 Dr. Know's band
 - 32 Texas place to remember
 - 35 "___-friendly"
 - 36 Cow's sound
 - 37 Like a bathroom floor
 - 38 Ah crap, a random obscure K-pop group got in here
 - 39 Tossers
 - 42 VisitKorea.or.kr group
 - 43 Grunt sound
 - 45 Ugh, another K-pop group, but this one had 11 members and was on Produce 101
 - 46 Fuck up
 - 47 Hongdae beer castle
 - 48 Huevos ___
 - 51 Offspring's label
 - 53 White, MacKaye, and Stuart Donaldson
 - 54 Gear tooth
 - 56 ___ de toilette
 - 57 Cartoon character Whip-lash
 - 61 Sort of like color
 - 62 Goes with phone or tone
 - 64 Ancient Roman ruins
 - 65 Ken's documentary
 - 66 First-year teacher
 - 67 Witty
 - 68 Chlamydia, gonorrhea, or

- DOWN**
- syphilis
 - 69 Wetland growths
 - 70 Grounation's count
 - 1 Korean emo band
 - 2 "___ and Stitch"
 - 3 Alternative to SMOE
 - 4 Surf band's need
 - 5 Earthquake sign
 - 6 Cheonan neighbor
 - 7 Super 8 ___
 - 8 Crips rivals
 - 9 Skateboard jump
 - 10 Female-fronted ska-punk band
 - 11 Navajo codebreaker
 - 12 Korean War JCS Chairman Bradley
 - 13 Chooses to
 - 21 President who caused controversy by wearing tan suits
 - 26 Former Team Korea coach Stielike
 - 27 Rocksteady's partner
 - 28 Movie star
 - 29 CJ Song's band
 - 30 Charged particle
 - 31 Finnish phone provider
 - 33 Subway
 - 34 Stenches
 - 39 ...___ That Means
 - 40 Long period of time
 - 41 Poison sent through mail
 - 44 Φ
 - 48 UK name for Russian money
 - 49 Perm, mohawk, or weave
 - 50 "___ Game"
 - 52 Opposite of lower
 - 54 Du-ri, Bum-kin, or Victor
 - 55 Impeach
 - 57 2002-2003 outbreak
 - 58 Counterpart to ids
 - 59 Taylor, Simmons, or Reinhart
 - 60 Brett Kavanaugh's school

Let's translate some Korean lyrics into English!

Dirty Rockhon - 은하수 (Milky Way)

This song seemed like a good choice, as there is a picture of the Unha rocket on the next page. I don't think I did well on this translation, but the song is clearly about living your dreams and the insecurity that comes with it. I like the metaphor of "wet paper airplanes." The song seems to end on a pessimistic note.

아직도 예쁜 꿈을 꾸며 사나요 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괜찮아요
I still dream a pretty dream, I do
A lot of people blame me, it's okay

하지만 하지마 조인이랑 명목에
Don't do it, don't do it, is advice
나의 꿈들은 그저 사치가 되네
My dreams are just luxury
어린시절에 나의 모든 꿈들은 비에
젖은 종이비행기
하지만 나는 떨어 지지는 않아 더욱
높이 날아갈꺼야
All my dreams in my childhood
are wet paper airplanes, but I
don't fall and I fly higher
그거는 안 그래
충고란 명목에
나의 꿈들은
그저 허수가 되네
절벽 끝에서
발을 헛딛는 대도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That's not true advice
My dreams are just imaginary
Even if I stumble at the edge of a
cliff I never fall
나의 인생은 다른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테니까
돈이 안 되는 꿈은 취미로 하고
나의 위치를 깨달으래
I can't change my life with any-
one else's
A dream that can't get money is
a hobby
He wants me to know where I am

Talkbats - Sonic

I chose this one of the two new Talkbats songs because the lyrics seemed a little more prosaic. There's a lot that I didn't do well. But hey, it's almost 2:30am the night before printing!

슬픔에 깨어난 깊은 밤
너를 떠올리며 위로받아

눈을 감으면 우주 속으로
반짝이며 흔들리고있어
I wake up in grief and I feel comforted by the thought of you
Close your eyes and you're shaking and shining into space

시시한 이야기라도 서로 즐거우니까
불안한 날들이라도 서로를 달래주었어
We're having a good time talking about things

We've been soothing each other for days of anxiety
친구야 넌 내 꿈 속에서 살아가
너는 내 안에서 지금 모습 그대로
You live in my dream, my friend
And you are in me as you are now

친구야 넌 내 꿈 속에서 살아가
파란 별 반짝이며 빛나고있어
네가 나의 우주야
You live in my dream, my friend
The blue stars are shining and shining

You are my universe
이런 날이 계속 되진 않을거야
바보처럼 같을거라 생각했어
눈을 감으면 그 예쁜 미소가
나는 너를 노래하고 있어
This day won't last
I thought it would be stupid
When you close your eyes, that pretty smile

I'm singing of you
시시한 이야기라도 서로 즐거우니까
불안한 날들이라도 서로를 달래주었어
We're having a good time talking about things.

We've been soothing each other for days of anxiety.
친구야 넌 내 꿈 속에서 살아가
너는 내 안에서 늙지않아
You live in my dream, my friend
You don't grow old in me

친구야 넌 내 꿈 속에서 살아가
파란 별 반짝이며 빛나고있어
You live in my dream, my friend
The blue stars are shining and shining
철없던 우리 인생의 무게로
지쳐올어도 난 너를 노래해
어느새 까만 밤은 파란 별들로
With the weight of our life with-
out iron(?)

I sing of you when I'm tired
The black night is blue stars
철없던 우리 인생의 무게로
지쳐올어도 난 너를 노래해
이제는 아침이 와~ 흘러져버렸어
With the weight of our life with-
out iron(?)

I sing of you when I'm tired
It's morning now~ it's gone

"Choose your weapon!" the president tells you.

You look around. It's downtown Seoul, so there's

not exactly much to choose from, let alone that can fight an excavator. Right on the corner of this block is a tower crane being used

to construct a new building. On the sidewalk below, a yogurt woman pushes her electrified cart, spreading yogurt to the people of Seoul.

How will you fight?

The crane. GOTO page 31
The yogurt cart. GOTO page 32

The Other Korea



Jon Twitch



The Pyongyang International Trade Fair had hundreds of booths selling domestic products and Chinese imports.

After first visiting North Korea in 2010 (see Broke 16), I was overdue for a return. The country had changed greatly, having seen a dynastic transfer of power, along with increased foreign tourism and major weapons development. Coupled with a peaceful revolution in South Korea and the destabilisation of government in the US, that led unexpectedly to some serious momentum in peace progress. The Pyongyang I'd previously seen was seemingly no more, and it was time to bear witness once again.

I had almost gone on a previous trip in spring, but chaos at work gave me an excuse to back out. This time, I saw a tour package that looked ideal to me: only four days, and time spent in Pyongyang and Kaesong, the two cities that interest me most. It was through a cultural exchange program named after Korea's most important mountain, run by a Canadian friend I had visited with in 2010, who later went on to return with Dennis Rodman and spend a weekend with Kim Jong-un. We'll call him Man-bok for now, as I don't want this article to become easily searched.

In late August I decided to join the trip, but kept off RSVPing until the last possible moment, just in case. My ulcer flared up and I virtually quit drinking for weeks, not cutting loose until I was in Shenyang on Sept. 18. The process of registering was easy enough, though it was only through Hongdae-based agency Soho Travel I was able to get the Chinese multiple-entry visa sorted out, a basic need for travel up there.

Work was a more complicated matter. I had the vacation days which would expire soon, but I sort of work for a newspaper, which would seem to be a major red flag. Man-bok assured me I was okay, and once I was up there I could be as honest as I wanted about my life down here. At work it trickled out where I was going, but I was

surprised later how slowly news travels at a newspaper — even our North Korea page editor didn't know until I published an article on it on Oct. 5.

When I carried the Olympic torch in January, my employers suddenly pounced on it, putting my photo on the front page the next day and asking why I hadn't told them in advance. I feared while I was up there someone would approach me with a copy of the latest front page of my newspaper, with a highlighted part saying "Korea Times editor Jon Twitch is also in North Korea right now." So this trip was wholly a tourism thing, with no sponsorship or support from any other entity minus the paid vacation days at work.

I consulted with some North Korea watchers about things to look for, and got the following two lists:

- North Korean comic books released this year
- any publication covering the Sept. 9 parade

And:

- the Ryomyong bikeshare program in Pyongyang
- products from the company Nae-gohyang
- cosmetics company Bomhyanggi
- visit a barber shop and/or look through a hairstyle book
- find patbingsu, which apparently is much different in the North

I also had a shopping list of my own:

- a North Korean suit
- a Pyongyang FC jersey
- anything related to North Korean maskdance
- electronic devices

Anyway, I later accomplished six out of eleven of these, which is not bad.

Before I could leave, I put myself through a lengthy cultural quarantine practice, attempting to remove all traces of my life in South Korea. I purged my wallet of various materials and cleared out all my digital storage. My phone, a Note 7 (I mean

FE) wasn't coming. My passport, issued in the South, had to come. I also took my ID card and a T-money card. I tried to clear out my wallet but ended up with a couple 1000-won notes that would become important later. Before it was too late I discovered a shirt I newly bought still had tags with Korean writing. And Soho had put my passport in a clear sheath that had all their company information, which I left at my office. I took three final pictures of my cats to start the memory card, so I could easily click to them any time on my trip. One showed Millie staring at me hungrily at her bowl, and one showed Buster doing the

same, then there was one of them looking at me as I went out the door; the last one I later found had Korean writing in it. So I didn't do a perfect job of preparing; if they had searched me, they would've found plenty of artifacts clearly from the South.

One night I left straight from work for the airport, hauling two bags and not even wearing a jacket. The plane landed in Shenyang and I took a taxi to the local Somerset Palace, where the rest of our ten-person group was also staying.

They had gathered the day before for an orientation before heading in, but by the time I showed up it



The renovated Children's Palace has a rocket replica!

You rush over to the construction site and scale the fence. Then you begin climbing the crane.

It's a long way up, at least 12 storeys.

You climb all the way up, pausing occasionally to catch your breath and fight off vertigo.

Finally you reach the top, climbing through the greasy turntable.

You come to the cab door, only to find it locked.

Meanwhile, Excavator Vigilante has gotten into position at the base of the crane.

He uses the shovel of his mighty vehicle to push and shove, and the crane tips over, with you on it.

THE END



Kumchon County, sitting at exactly the 38th parallel. Everything south of this used to be the South.

was clear this just meant a piss-up. I met some of the group members and a few others who weren't joining us. Notably I met Paul, literally the fattest person I've ever met, a former pro judoka who sustained injuries and bloated up later in life; he got around by crutches or wheelchair, so this was going to be interesting.

The next morning, er afternoon, we went to the airport for our Air Koryo flight. I bought a beer that was unpleasantly warm before the flight, and when someone made a remark about warm beer I took that as a reference to Otto Warmbier. The backside of our airline tickets had a big warning saying they wouldn't let Note 7s on the plane, so I made the right choice there.

My 2010 visit, we'd taken a Tupolev I believe Tu-204, a sleek modern-looking jet. This time, we were on a much less impressive Antonov An-148, a high-wing monoplane the Russians had grounded after a crash in February. When the bus dropped us off on the tarmac in front of it, one of the cockpit windows was open. I'd heard defective windows were an easy way to blow a plane apart in the sky, and knew this was the most dangerous flight I'd ever taken. Meanwhile, Chinese tourists gathered out front taking pictures in front of the thing.

My seat was third row, but everyone else on the tour managed to get themselves seated in the two-row first class in front of me. I asked Man-bok how long the flight was and he said he heard something coming from the peasant class. The rest of the flight was a class war, with me plotting an uprising. I moved from my aisle seat to a window seat and a Korean guy took my original spot, so I hope Man-bok looked back and was startled to see I'd suddenly become a North Korean.

They served us a burger and a drink resembling a cola, apparently standard of the airline since after my first trip. The burger was kind of my stereotype for South Korean burgers from 15 years ago, all grey

and brown on the inside. I put mine in a hotel mini-fridge that turned out to be unpowered and never looked at it again.

I also recall being surprised seeing a fly aboard. Maybe to a fly, it doesn't matter whether it's in China or North Korea.

When we landed, I looked out the window, trying to see past the drooping-down jet engine. I recalled in 2010 when we landed seeing all sorts of military vehicles parked on the tarmac, but nothing this time. And as we approached the airport terminal, the Taegukgi flashed at me, and 대한민국 next to it on the fuselage of a massive 747 I figured could eat this plane. It was Moon Jae-in's plane.

When I originally signed on for this trip, I knew Moon was planning a Pyongyang visit sometime in September. After the dates of Sept. 18-20 were announced, I knew I had to move forward. Seeing that 747 there was a welcome unlike any other. I likened my previous visit to going back in time to the 1960s, or possibly crossing into a parallel universe, but this time I didn't feel any such distortion at all.

Once we cleared customs, which was a casual process but during which I surrendered a Chinese English-language publication I'd accidentally brought, we assembled in the airport at the kiosk. The kiosk had various products, including foreign cellphone service plans and Taedonggang beer. I went for the latter and struck up a conversation with the girl working there, who was in her early 20s and quite pretty except for a skin problem. I asked her how she liked her job, and she surprised me by saying she didn't really like it. A few seconds later, her phone rang. She didn't talk to me much after that, other than to say "See you again."

We met our guides, who I'll call MK and SK. MK was in her early 30s, married with one kid, and SK was an older guy whose mugshot would've looked right next to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꼰대*, except he was unexpectedly very kind and patient. He didn't like having his

top of it and drive away.

You drive and drive, with Excavator Vigilante hot on your heels. Then, up ahead, you reach Cheonggyecheon. You bring the cart to a stop, teetering on the edge. Excavator Vigilante brings his shovel down, crushing it and spraying drinking yogurt everywhere. But

you leapt out of the way, landing safely in the water of Cheonggyecheon.

The excavator inches forward, its shovel stretching out to get you. The excavator's tank treads struggle with the slippery surface created by all the spilled yogurt. He slips forward...

When we checked in, I went to my room, which was exactly how I remembered. The TV had two North Korean channels, a bunch of Chinese ones, and Al Jazeera. One of the Korean channels had a show on a Korean close-up magician, which was exactly what I wasn't expecting.

In the hotel bar, I met up with Man-bok as well as the infamous Simon Cockerell from Koryo Tours, who shared some hard liquor that made me wake up late the next morning and almost miss my appointment with the tailor.

Day 2 started slow, as our group took time to assemble in the lobby. I had an appointment with the tailor at 8, but woke up at 8:09, and the bus was supposed to leave at 8:30. Somehow I still made it, and wasn't the last one on the bus.

Our first stop was the Kim Il-sung and Jong-il statues on Mansu Hill, which is right next to Mukimuki Hill. SK had to push Paul in his wheelchair up a long, gradual slope, and I could see in his face not a shadow of resentment or superiority for pushing this humongous foreigner around.

In an out-of-the-way corner between the Kim statues and the Chollima statue, we gathered for a few minutes for what became a sermon. SK, holding Paul's wheelchair, did his best to explain his country's philosophy and worldview. Juche, to him, was about individual empowerment, more like punk DIY than Marxism. According to him, communism was made for European countries, but didn't fit Korea right; I believe based on that reasoning they took down portraits

of Marx, Lenin, et al from Kim Il-sung Square sometime after my 2010 visit.

He told us he thought Trump has good intentions for Korea, to which I muttered "North Korea maybe." To him, Trump's hands were tied by American conservatives. I told him and MK I hated Trump, and mentioned to them the irony that he seemed more positive toward their leader than my own. And this is before he used the L word.

SK made mention of the UN Command recently barring a South Korean survey team from going North to inspect the rail network, which showed the US is in charge and South Korea is an occupied state. The act itself had been done so symbolically and deliberately, at the time before coming here I had even thought it was a message from America that they're in charge on Korea soil.

From there we headed to the Three Revolutions Exhibition, which strikes me as sort of an Expo grounds, spotlighting heavy industry, culture, and agriculture. Our bus pulled into a big square filled with Koreans heading in the same direction by foot, but we drove past them, entering through a big gate to keep us segregated — but not for long. Once we got off the bus, we were free to go where we wanted.

The Pyongyang International Autumn Trade Fair was taking place, with hundreds of booths set up hawking all sorts of products, from toothpaste to electronics to clothes. I rushed through, more interested in seeing it all and buying things than interacting with or observing people. I bought whatever nonperishable foods I could find, Bomhyanggi hand cream, and an Achim tablet and smartwatch.

I've since come to know, a smartwatch is basically like a regular watch except you have to press a button to see the time. There is also a step-tracker that seems to also count slow-moving buses, and a heart monitor that seems to fluctuate between 0 and very high. I've since joked, after returning, that if it detects anything too abnormal it dispatches an ambulance from Pyongyang, which comes to the DMZ and just waits for me there, behind an increasing line of other ambulances.

We had a break for lunch somewhere else. Apparently the restaurant staff noticed I wasn't eating much and made remarks on it. When I noticed our guides being served raengmyeon, I remarked they were getting better food than us and was brought a bowl of my own. I managed to convert two of my companions, both who expressed disinterest in Korean noodles but immediately recanted on

Meanwhile, in another part of Seoul, a Sri Lankan migrant worker launches a paper lantern into the sky. It comes down in an oil tank facility, causing an explosion that blows the whole city to kingdom come.

THE END

You run up to the yogurt cart and push the woman operating it away. This does not seem to detract any of her customers, who really want their yogurt.

But Excavator Vigilante is coming at you!

Fortunately the yogurt cart is motorised, so you hop on



This building was said to be part of Sungkyunkwan University of Light Industry in Kaesong,

trying a small sample. I myself had not been a big fan of South Korean naengmyeon until trying it in Pyongyang in 2010.

There was a shop at the restaurant with various foreign products, including a Hello Kitty banana board and a "Hamburger Educational Toy," and photographing the latter led to me being forced to delete a picture for the first time in North Korea.

After lunch, we returned to the trade fair, with most people realizing we'd only seen a small fraction of it. Conspicuously absent was Korean alcohol, something I'd hoped to find during this visit. I ran into Simon from Koryo again, and we went out to the food tents and had a few beers together.

After that, we went to the Children's Palace, which I'd seen last time and been a lot more impressed with before. While there, one companion pulled up pictures of Moon and Kim at Mt. Paektu, which confused our student guide who didn't understand the internet or how anyone could've accessed those pictures outside the state media.

Then we went to Future Scientists Street, a riverside development full of buildings that looked straight out of Vegas or Macao, said to be housing for scientists grouped by discipline. I would be curious to see the quality of life inside them, whether it reached the level of South Korean modern apartments. From the bus, I could see three Korean men walking along, examining a US dollar bill one had somehow procured.

We left the bus and walked around the street, during which MK started asking me about my life. I've used similar techniques to try to get information out of a person, so I knew what she was doing, and if she dug too far down she'd find South Korea and my editor job. But I was more than happy to talk

with her, telling her about divorce and living with cats, as well as the sharing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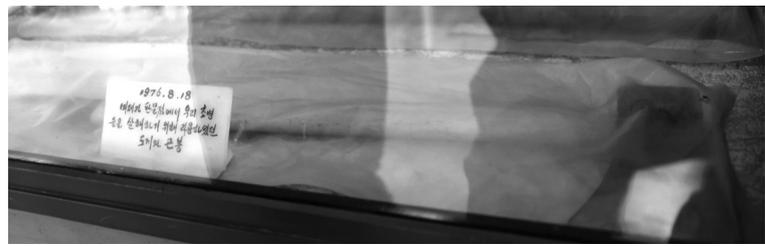
For dinner, we were served duck for the third meal in a row (not counting breakfasts). I remarked, "Somewhere there's an old man sitting at a pond with a bag of breadcrumbs and a sad look on his face."

We went back to the hotel, where I had a fitting for my suit. It was all rags, and the older female tailor wanted to adjust everything, at one point tearing out the sleeves and starting over again. Her one English go-to phrase was, I believe, "moment," but through her raspy voice it sounded more like she was exclaiming "my man!" She'd pound my shoulder and say "my man!" and I'd wonder if she wanted a high

level 3, where I and four Chinese women jumped off, happy to be alive.

All upward elevators arrived too full, so we went back down to 2, where a surge of Chinese tourists boarded. I physically got in their way, shouting we'd had a collapse, and barely managed to keep the crowd size low enough. Fortunately there were a few Malaysians among them, who spoke English and were nicer. Later, every Korean I told about the collapse took it as just a warning the elevator was overloaded, like that was a normal function of the elevator to do that.

Day 3 started a little faster, as we were in a race south to Panmunjeom against many buses of Chinese tourists. When we left the sky was overcast and the North Korean



"And my axe!"

five.

After that, I went to the hotel to go up to my room on the 38th floor. The Korean elevator attendant was kind, but the droves of Chinese tourists were not. When I got on an elevator, it flooded with Chinese people until the alarm sounded. After a few people got off, the doors closed, and suddenly the elevator plunged downward about a meter, remaining frozen in place. Was I going to die in this enclosed space packed with Chinese tourists? It sounded like Hell already. Someone hit the call button, and when someone answered nobody replied, so I shouted "We're trapped, help!" The elevator took us from level 2

landscape was covered in mist. I discovered North Koreans refer to tunnels as 굴, not 터널. We passed Kumchon County, a nice collection of brightly colored highrises along a waterway which I was told marked the 38th parallel exactly, and from there south we occasionally passed military checkpoints. SK would occasionally shout "Checkpoint!" and we'd have to hide our cameras and phones. He otherwise was fine with pictures from the bus. But one of our members, an older Venezuelan guy, was a little slow with English and we had to be extra careful with him.

Then we passed Kaesong, which was more colorful than I remem-

bered, leading me to believe it got a new coat of paint over the last eight years.

The DMZ visit was much like last time, except the wetness made my cheap Dongdaemun shoes unwearable, especially after I walked through a soggy washroom floor with them. I bought a bottle of 뽕술 which I gave to the bus driver to load back onto the bus. Then when I boarded and it wasn't there, I wandered up and down asking if anyone had seen my pet snake.

The DMZ visit itself was anticlimactic. We didn't see anyone on the other side and we couldn't go into the blue shacks straddling the MDL. We got on top of Panmungak, where the Chinese tourists were boorishly loud to the point where we could tell they were irritating the Koreans. We visited two shacks on the North side where important negotiations had gone down, and I confirmed they had the exact axes from the Axe Murder Incident on Aug. 18, 1976, which MK said were kept as evidence of a crime. If you've never heard of this before, look up Operation Paul Bunyan.

Next we returned to Kaesong, a city that has stimulated my imagination for years. There is one central axis, a gently curving road that goes down one valley wall and up on the other side to where leader statues are found, giving a pleasant scale of the city. I did a lot of photography from the bus, getting better at timing it so I would capture scenes between buildings, where you could see up alleys into the real circumstances of North Koreans' lives. The images I got showed people in transit, as well as selling wares, or just hanging out and having a good time. Like last visit, it was sociologically probably the most accurate view I got the whole time.

We went to the Koryo Museum, installed at the site of the Sungk-



Over yonder is South Korea.

It's totally best to launch your attack behind false flags, so it can be blamed on the usual culprits.

Soon, artillery is raining down on Seoul, killing millions.

Then planes are flying through the sky, while tanks are rolling through

the streets below, all covered in the star and bars flag.

As you view a decimated Seoul, you turn to your aide. "How did you stage an invasion force that looks so authentically North Korean?"

"Oh yeah, they're all basically the

Korean People's Army," he says.

"You mean, I led a North Korean invasion of Seoul, just to take out a president I accused of being communist?" you reply in horror.

Your aide shrugs. "Mission accomplished?"

A helicopter lands in front of you, and Kim Jong-un gets out.

"Cool!" he enthuses, strutting into an abandoned Cheong Wa Dae. "I always wanted one of these!"

A place that rhymes with South Korea

yunkwan of the 918-1392 Goryeo Dynasty. It was my second visit, but between those two visits I spent a year working at the South Korean Sungkyunkwan, where I was the de facto tour guide of the Confucian academy's grounds. I was impressed it had received UNESCO status, but disappointed they kept only the middle gate open, originally intended for the Confucian spirits considered higher than the king himself. This style of academy had been brought from China's Confucianist Song Dynasty and was always a Confucian construct, so while the guide de-emphasised Confucianism, he didn't explain why this academic system arose in the first place or why it had a Confucian temple. Instead, the ideology we were presented showed how Confucianism later oppressed Buddhism, which was portrayed as more of a religion of the people. Everyone stayed obediently on the path running through the middle, except me who ran off in every direction, knowing that path is also intended for the spirits only. Seriously, if you try to even cross it during a Seokjeon Daeje ceremony in the South, someone will stop you.

After we walked through Koryo Sungkyunkwan, I ran ahead so I could get up to the front of the Sungkyunkwan University of Light Industry next door, a single large building designed in a Korean style. I'd heard this modern university was made possible during the Sunshine era when the South's SKKU donated computers, though the two universities have no more direct ties unfortunately.

I only know of one other person who's been to all three Sungkyunkwan campuses, and am hoping to find more. Among the people who've been here and to the Seoul campus, few have also been to the Suwon Natural Sciences Campus.

We went for lunch in Kaesong, where we had something called 인삼닭곰 which was indistinguishable from samgyetang. The food here was passed around on a lazy susan, and we contemplated what name the North Koreans would have given that device. The restaurant also offered many foreign goods, including Pepsi manufactured in China and Kuhle pickled gherkins,



Two boys in Kaesong laugh at our bus. A third boy sits in the alley manning a shoe repair mound, which would've been unimaginable eight years ago. When we left the restaurant, I noted a traditional building behind the parking lot, which SK told me was the home of Jung Mong-ju, the Goryeo loyalist who refused to adapt to the new Joseon era, was executed for it, and later venerated in major Confucian ancestral worship ceremonies. I also noticed SK and I both had a weird ear hair growing in the middle of our left earlobes, right around where a normal person would get a piercing. Genetic similarity?

On the way back to Pyongyang, I asked about Dokdo, to be told they don't see it as North Korean, just as Korean, and to be resolved only with reunification, a smart answer. I also spotted a Gangnam County south of Pyongyang, as well as a 미니골프장 which led me to wonder if North Korea's mini golf is better than the South's virtually nonexistent one. During a quick stop at the hotel, I bought some Chinese-made slippers to replace my smelly waterlogged shoes. Ironically in 2010, I also had a shoe failure when my Dongdaemun-purchased bootleg shoes also fell apart.

We rushed to the Rungrado 1st of May Stadium to see the Mass Games, now rebranded from Arirang Festival to 빛나는 조국, of-

ficially translated as "The Glorious Country." The world's largest stadium (capacity 150,000) was nothing new to me, but seeing it this full was. A constellation of cellphones spread out below me distracted from the show. Paul, due to mobility issues, had been brought to a different landing, ending up in the 800-euro seats which were wheelchair-accessible, for the price of the 100-euro seats the rest of us were stuck in. Thanks to him, we were often able to cut corners, taking the bus right up to the front door rather than having to walk in.

The show began with the stadium going dark, and the North Korean flag, the Star and Bars, being brought out and lifted up toward a giant flame it never reached. Then, an array of drones came out, spelling out the event name and spinning in perfect formation over our heads. The event played out like the previous one, showcasing periods of Korean history and modern development, glazing over modern times of warfare in favour of a more reconciliatory message.

President Moon had attended the same event two days earlier, giving an impassioned speech. He was gone now, but about 70 minutes into the program, the stadium fell dark and a massive projection was played over the blank cards of the

schoolchildren participants opposite us, showing Kim and Moon meeting for the first time at Panmunjeom, followed by footage from the next couple summits. After that, the orchestra played a few foreign numbers, including "Guantanamera" which the Venezuelan next to me sang along to.

After that, we went to the Koryo Hotel for a late dinner, where one of my companions had asked for and been served dog. I was next to her, and rather than totally ignore it, I had a couple spoonfuls, approximately doubling the amount of dog I've consumed in my life.

We arrived at the Yanggakdo late, but my suit was waiting for me. I put it on, my Yanggakdo Leisure Suit. It was grey, made of material not patterned or shiny, with three buttons and short sleeves. Usually foreigners looking for suits want something like what one of the Kims or Mao Tse-tung would wear, but I wanted something like what I remembered from my last visit, a comfortable suit with short sleeves worn by the humble people of North Korea.

Having this, I went to the bar, where I found some of my companions sitting with people from another group. I sat down next to a very obviously transgendered person from Europe. Someone made a transphobic joke over the fact I'd been in a relationship with a Kim Jong-un, and their reaction made it very apparent to me. They kept referring to South Korea as "American-occupied Korea." I heard stories also about a previous transgendered person who visited sometime earlier, wearing female 조선옷 at every opportunity, which made me curious to inquire about sexual minority foreign tourists visiting North Korea. There'd probably be a very interesting study in that for someone.

From that, I went up to my room, only to find my keycard wasn't working, until I realised I was not on 38F but 17F, one of the Korean floors. Fortunately I escaped undetected.

Day 4, I got into my Yanggakdo Leisure Suit and checked out of the hotel. The rest of the group was going to visit the film fest without me, and SK and MK couldn't go with me so they sent me to



Well, now that you've freed your princess, she's back in the Blue House. Out of gratitude, she offers you an appointment as

prime minister, but you know that's a raw deal, so you request the Seoul mayoralty.

One military action later, and City

Hall is yours. Your first act is to clear out all the corpses from the building.

You and the princess rule South

Korea with an iron fist for decades to come.

THE END

For Global Independence 为了世界的自主化



The new Mass Games had a few messages for the foreign fans. Tens of thousands of schoolkids hold up the individual pixels for that sign.

Pyongyang Station with two other coworkers who were younger and seemed nice enough. One brought me inside the station and left me at a bench, where I thought I'd been deserted among all the Chinese tourists. But he came back a moment later and stayed by my side until the train left.

I was loaded into a train cabin with six bunks, where I found two Western guys, a Thai girl, and a Chinese guy who couldn't communicate with us and was clearly bothered by this arrangement. A German guy also joined us, who I recognised from the night before in the bar. He turned out to have visited six times and was running tourist activities himself; he was quite surprised when I mentioned the gender status of his other companion.

My camera died quickly after taking only a few pictures, so I just enjoyed the ride with my temporary companions, sharing a few drinks. Soon we saw the highrises of China looming in the distance, and the train stopped at Sinuiju for a couple hours as we underwent a tedious border screening process. They swept the train car cabin by cabin, asking increasingly invasive questions each time. On the last sweep, they took our customs declaration forms and did spot checks randomly of two of five people in our cabin. I had been worried the whole time they would inspect my bag and ask to see photos, as my camera battery was dead. Fortunately, they asked two other people, neither of whom had anything remotely incriminating.

During the wait, I made a few trips to the washroom. Although my ulcer had mostly been in remission, it was coming back now, right when we were among North Korean borderguards. I also had what I've come to call squatter constipation, which is when you need to go but you just can't quite force it out over

a squatter.

Finally, the train rolled on, next stop China. I disclosed to my temporary companions that I worked for a South Korean newspaper, and one of them, an Australian, breathed a sigh of relief and replied that he was a dual citizen and had an American passport.

After we arrived in Dandong and cleared customs, we went our separate ways. I found that my bus straight to Shenyang Airport, where I had a hotel room booked, was already gone. I slogged around through Dandong hauling four heavy bags, dressed in a North Korean suit and sandals. Fortunately there was a bullet train that hadn't existed in 2010, so I bought a ticket.

But then after an hour, the train was pulling into Shenyangnan Station: was that my stop? What was "-nan?" I found a Korean-speaking attendant and managed to communicate with her somewhat. As the train pulled into Shenyangnan, which was clearly out in the boonies, they all urged me to get off and told me to follow one guy. But who? Turned out, just some fellow passenger with his wife who insisted on driving me to the airport hotel. I told him I could get a taxi, but he told me he could drive me for free. He spoke some English and his wife spoke some Korean, though she seemed like she didn't want to advertise this. We walked five minutes from the station to a dark parking lot where he pulled out his hatchback, and proceeded to head out through dark empty streets.

I looked out through the windshield and the street signs didn't say anything about the airport for a long time. What was my destination? Organ harvesting? Human trafficking? I was still dressed like a North Korean, so how did I look to these Chinese people, especially in an area where exploitation

card monte scam on a street corner. You declare a race war on African-Americans and give all of California over to Koreatown, while also issuing a decree that fried chicken is now officially Korean food. And you load up the Supreme Court with fanatics who make Christianity mandatory to the whole population.

And yes, years later the people re-elect you.

Honestly, not much has changed under your leadership, and voter

of North Koreans is common? But eventually the street signs did start indicating the airport, and they pulled up right in front of the hotel I recognised from online. What motivated them to drop me off, presumably 20 minutes out of their way, I can't guess, but it vastly improved my impression of Chinese people. My thoughts on North Koreans hadn't changed a bit during this trip, but this one act erased some of my resentment of Chinese tourists. They were kind and drove me for purely selfless reasons, not to force friendship, not to practice English, and not to harvest my organs.

Once I was checked into the hotel, around 9pm, I allowed myself to have my first full meal of the day, buying a thing of Chinese instant noodles and two big beer bottles. I had the noodles and took a few sips of beer, then passed out. The hotel was comfortable but sort of unhelpful, with no English TV channels, no alarm clock, but plenty of monogrammed bathrobes.

Next morning, I caught my morning plane back to Incheon. I noted



Wearing the Yanggakdo leisure suit.

turnout is at a record low, and most voters see your opponent, Alexandria Ocasio-Cortez, as no different from you, after a grueling and wearying three-year re-election campaign.

One day, an aide comes up to you with a newspaper from your native Korea. On the front page is an article about how the unified country is doing fine.

"No, look inside," the aide says. You open it up to an article re-

turning to my life and all its personal problems, an unpleasant awakening. After making it out of the airport back into civil society, I bought a beer from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ich was pleasantly convenient, but the beer tasted awful. On the train ride back to Seoul, I noted the horribly monotonous "I Want" apartments before me. After I arrived at Seoul Station, I went above ground to see the only two buses that could take me home arriving at my bus stop and pulling away before I could run over, irritatingly delaying my return by a good 15 minutes, as it was the Chuseok long weekend.

Through all this I was still dressed as a North Korean. As I returned to my apartment, I picked up my phone and turned it back on, only for the onslaught of social media to overwhelm me; I spent the next hour sorting through correspondence I had to catch up on. Although North Korea is no longer fully the escape from the modern world it once was, to me having left my electronics behind it still de facto was.

As I settled back into my South Korean life, I felt myself hoping I wouldn't forget the self I rediscovered up there, and with it the outsider perspective on Korean society. Whereas my first visit was formative in coming to terms with the reality of the divided peninsula, this return trip advanced me on earlier themes, showing me a society with internal rules where one can succeed or fall behind. I hope the next time I return, it's over land and I can get some serious study done of the cultural assets of the upper half of this remarkable country, perhaps meeting my previous guides again.

vealing how the members of BTS were all grown from stem cells.

"Oh, who pays attention to the news anymore?" you tell your dumb aide.

The aide turns more pages. "I wanted to show you this," your aide says, pointing at an article. "Former President Park found dead in her jail cell."

"Who?" you ask with a shrug.

青少年「무절제 퇴폐향락」에 새 풍조 「한국형 펑크族」 늘고있다

머머머리에 유니섹스차림...隱語쓰며 유흥가 활보



머머머리 차림을 한 청소년들이 한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트렌드'라는 잡지에 실린 것이다.

“노예”였다 “범람민” 된다

처음 만나 술마시고 춤추며 혼宿예사 유흥비 마련위해 犯罪 저지르기까지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서울 시내의 유흥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노예'에서 '범람민'으로 변모했다. 처음 만나 술마시고 춤추며 혼宿예사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 저지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들은 주로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유흥가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술마시고 춤추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범죄에手を染히게 되었다.

영남도료料金 「신질질」

지역실정맞춰 基本·走行料 자율조정케

【영남 21일 특보】 영남도료料金이 「신질질」로 변모했다. 지역실정에 맞춰 기본料과走行料를 자율적으로 조정케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영남도료料金의 자율조정 움직임은 지역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가 침체된 지역에서는 기본料을 낮추고, 경제가 호황인 지역에서는走行料를 높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濟州경제 「百億부도 쇼크」

【濟州 21일 특보】 濟州의 경제가 「百億부도 쇼크」에 직면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가 침체되어,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는 지역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美最新型機 F20

【서울 21일 특보】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 F20가 한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공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인사 말씀

지난 33년 동안 한국 최초의 성병의학과 의원으로서 송남원의 그간 여러분의 깊은 지도와 원만한 협조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4. 10

송남원의원

전문의 <원장> 윤형신

의사 <남상욱, 서영자>

서울 남대문로3가 85<서울시경원>

전화 : 752-5969-9406

후지통

후지통은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후지통